

# 기독일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우수대리점  
전 세계 항공권 최저가 도매개별 맞춤 투어 전문

213.388.4141

1001 S.Vermont Ave. #209,  
Los Angeles, CA 90006  
1-855-388-4141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877)580-2424

Tel. 213-739-0403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E-mail : chdaily@gmail.com

THURSDAY, July 28, 2016 Vol. 539



아버지학교 LA목회자 12기 수료 목회자들이 수료식이 끝난 후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주님! 제가 아버지임을 고백합니다

### 두란노아버지학교 LA목회자 12기, 13명 목회자 아버지 수료

두란노 아버지학교 미주본부 주최 제12기 LA목회자 아버지학교가 18일~19일, 24일과 31일에 걸쳐 갈보리선교교회(담임 심상은 목사)에서 열렸다.

“목회자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과 교회가 산다!” 주제로 열린 이번 12기에서는 13명의 목회자 아버지가 수료했다.

강사로는 성요셉 목사(소망장로교회 담임)가 1강(아버지의 영향력), 이준성 목사(멕시코 선교사이며 ANC온누리교회 선교목사)가 2강(아버지의 남성), 권준 목사(시애틀형제교회 담임이며 미주아버지학교 지도목사)가 3강(아버지의 영성), 그리고 이재환 선교사(Come Mission 대표이며 아프리카 선교사)가 4강(아버지의 사명)을 각각 섬겼다.

또한 이미 아버지학교를 수료

한 4명의 아버지들이 자신들의 삶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는 등 강의와 고백을 들으며 준비없이 된 아버지로서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시작되는 미주아버지학교는 지난 2000년 시작以來 별써 700회를 넘겼다. 1세뿐만 아니라 2세와 3세 영어권까지 확대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그중 LA목회자 아버지학교는 작년 11

기까지 총 372명의 목회자 아버지가 수료했다.

두란노 아버지학교는 3가지 사명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 첫째, 성령에 만감하게 반응할 것, 둘째, 성도와 교회 및 사회와 연합할 것, 셋째, 이 모든 것을 실제 삶에서 실천할 것 등. 이는 아버지로서의 선한 영향력이 각자가 속한 공동체를 세우고 살리게 하기 위함이다.

[관련기사 2면에 계속]

## “핍박받는 베트남 기독교인들”

### 정부 기독교인들 통제…독살 위험 속 수감생활

베트남 기독교 목회자들 100여 명이 중앙 공인 교회에 가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수감된 후, 독살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최근 보도했다.

공인 교회의 목적은 부흥하고 있는 가정교회들의 영향력을 통제하고 억제하는 것이다.

기독교구호선교회(Christian Aid Mission)에 따르면, 성도들의 수가 3천 명에 달하는 한 가정 교회는 다른 교회와 병합해 500

명만 수용할 수 있는 건물에서 모임을 가지라는 명령을 받았다.

수감된 교회 지도자들은 베트남의 중앙 고원 마을 출신이다. 많은 지도자들이 해당 지역과 심지어 베트남에서까지 탈출했으나 강제로 소환되어 감옥에 보내진 것으로 추정된다.

1975년부터 1984년까지 수감됐던 사역 지도자 수는 다음과 같아 말했다.

[관련기사 10면에 계속]

## 교단선교 선두주자 GMS [13면 참조]

“예수영맥을 따라 광야로 나선 순례자들의”  
기독교 대한감리회 **빈들교회**  
담임목사 : 김 용 조  
Tel: (818)518-0033

■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관상기도회(금) 오후 8:00  
32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818)518-0033

**아이비 유학**  
Shelby Kwon  
Director  
적성검사를 통한 진로 선택의 지름길  
재능 계발: 토랜스, 얼바인 Class  
(Verbal, Visual, Logical, Creative, Physical, Emotional)  
3-7-21 재능캠프  
LA 500 Shatto Place, Suite 200  
Torrance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Irvine 17702 Cowan, Irvine, CA 92614  
USA Tel:(951) 383-5583  
Tel:(949) 329-8222  
Email:shelby.moon65@gmail.com  
[www.MyIvydream.com](http://www.MyIvydream.com)

##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2016년 가을학기 신(편)입생 모집

“ABHE 인가위원회(Commission on Accreditation), 2016년 6월 27일자로 본교가 신청한  
크리스천 상담심리 석사 (M.A. in Christian Counseling Psychology) 과정 개설 승인”

모집 과정

신학사 (B.A.), 교역학석사 (M.Div.)  
크리스천상담심리 석사  
(M.A. in Christian Counseling Psychology)  
※ 원격강의로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개강 : 2016년 8월 29일 (월)  
온라인 개강 : 2016년 9월 5일 (월)

ESL 개강 2016년 9월 5일 (월)

입학관련 문의

- 미국 1-562-926-1023 ext. 300 / office@ptsqa.edu
- 한국 지역 대외협력 코디네이터 (박정환 목사) : 010-6612-1165 / park27-42@daum.net
- 유럽 지역 대외협력 코디네이터 (주철현 목사) : 010-9086-2458 / diaconia@gmail.com

ESL 문의 및 상담 : [www.facebook.com/SLCS.EPT](http://www.facebook.com/SLCS.EPT)

● 강우중 교수 (wjkang@ptsqa.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 926-1023 Fax. (562) 926-1025

[www.ptsa.edu](http://www.ptsa.edu) / [office@ptsqa.edu](mailto:office@ptsqa.edu)

본교(PTSA)의 특징은,

5대주(북미주, 중남미, 유럽, 오세아니아, 일본)의 글로벌 네트워크

성경적 세계관과 복음주의적인 신학

기독교 인문학적 성찰과 훈련

첨단 테크놀로지와 우수한 컨텐츠를 기반으로 한 교수 - 학생 밀착형 온라인 교육

다양한 장학제도

졸업 후 진학과 사역지와의 분명한 연결

\* 전 세계 21개 지역노회로 구성된 해외한인장로회(KPCA) 총회 직업신학교인 본교를 졸업하면 본 교단 목사고시는 물론 예장통합(PCK) 목사고시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본 교단 소속 노회에서 인수 받은 뒤에는 협력교단인 예장통합과 미국장로교(PCUSA) 소속 노회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영환 목사의 '십자가의 도' 세미나가 베데스다대학교에서 개최됐다.



이영환 목사.



목회자 초청 건강 세미나가 한인타운 내의 한 식당 세미나룸에서 열렸다.

## "십자가의 도 통해 처음 사랑 회복"

베데스다대학교 주최…이영환 목사의 '십자가의 도' 세미나 열려

"그리스도의 장자권과 하나님 자녀의 권세 누림" 세미나로 유명한 이영환 목사(대전 한밭제일교회 담임)가 이번에는 "십자가의 도"라는 주제로 남가주를 방문했다.

18일~20일까지 베데스다대학교에서 열린 이 세미나에는 약 90명

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이영환 목사의 책 "십자가의 도"를 교재로 해서 성경 말씀 읽기와 질문 형식의 분석,기도 선포, 개인 묵상 순서로 총 8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영환 목사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길 원한다. 그리스도의 장자권 세미나와 함께 십자가의 도가 짹을 이루어 강단을 더욱 생명력 있게 세워가길 기도한다"고 전했다.

김준형 기자

## "목회자의 건강 및 호스피스 사역"

목회자 초청 건강 세미나 열려

목회자 초청 건강 세미나가 26일 그레이스 호스피스의 최승호 원장을 초청해 열렸다.

이날 최 원장은 "목회자의 건강 관리 및 호스피스 사역"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최 원장은 목회자들이 주로 겪는 스트레스성 정신 질환과 이런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각종 방법을 설명했다. 또 목회자들이 호스피스 원목으로 섬길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소개했다.

우리복음방송과 크리스천비전 신문사, 남가주한인목사회와 미주 크리스천대학, 나눔과섬김의교회, 남가주한인원로목사회와 남가주 한인여성목사회가 함께 준비한 이 행사에는 150명 이상의 목회자 및 사역자, 평신도 리더들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김준형 기자



착공 감사예배에 참석한 교회 및 LA시 경찰 관계자들, 인근 주민과 상권 관계자들이 첫삽을 뜨기 전 기념촬영하고 있다.

## "새생명비전교회, 새 건물 착공식 가져"

새생명비전교회가 23일 새 성전 착공 감사예배를 드렸다.

새 건물은 로즈펠리즈 블러버드와 샌페난도 로드가 만나는 곳에 있는 코스트코 건물 뒤 공터로 과거 뉴호프채플이 있던 자리다.

주소는 4226 E. Verdant St. Los Angeles CA 90039다.

교회 측은 2개의 건물 가운데 교육관이 포함된 다목적 건물 1동을

먼저 짓는다고 밝혔다. 이 다목적 건물은 4만8천 스퀘어피트 규모로 소예배실, 교실, 체육관, 식당, 중보 기도실 등을 포함하고 있다.

추후 건설될 본 건물은 3만7천 스퀘어피트 규모로, 본당에는

1,130명이 앉을 수 있다. 이 본 건물 내에 북카페와 교회 사무실 등이 들어간다. 주차장에는 한 번에 1,100대가 주차할 수 있다.

강준민 담임목사는 새 성전 착공 감사예배에서 "많은 영혼이 구원 받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며, LA와 커뮤니티를 복되게 하고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곳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교회는 지난 6월 6일부터 건물이 완공되는 날까지 554명의 중보기도자가 24시간 릴레이 중보기도를 하고 있다. 김준형 기자



10일 전교인 선교 파송예배를 드린 모습.

## "선교 통해 이웃 섬김 실천"

예수인교회의 멕시코 및 이웃 미자립교회 선교

"예수의 삶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교회 비전인 예수인교회(담임 박정환 목사)가 12일~23일에 걸쳐 '예스 미션 프로젝트' 단기선교를 다녀왔다.

이 단기 선교는 아리조나 투산팀을 포함 4팀으로 나뉘어 각 선교지로 파송됐다. 이들은 각자의 선교지에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며 섬겼다.

먼저 아리조나 투산 선교팀(비필 우 팀장)은 노숙자 선교사업 및 지역교회 봉사로, 멕시코 선교팀(윤태식 팀장)은 멕시코 지역교회 주일예배를 함께 드리며 중보기도와 물질로 후원했다.

그리고 벨리 지역 미자립교회와의 협력과 동역을 위해 벨리반석교회(팀장 이호중 목사)와 벨리중앙교회(팀장 유경환 장로)를 방문하여 섬겼다.

이는 미자립교회가 하나님의 은

혜 가운데 아름답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동역하기 위함이다. 이들 이웃 교회 선교에서는 직접 주일예배를 참가하며 예배와 현금으로 섬기며 지원했다.

예수인교회는 개척한 지 일년도 채 되지 않은 규모가 아주 작은 교회이다. 그렇지만 그들과 같은 처지인 미자립교회를 돋는 일에 '보낸받은 자'의 사명을 다하며 감당해 가고 있다.

서로 교파가 다르고 성향은 다를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같은 형제로서, 미자립교회를 돋고자 하는 사명의식이 투철한 이 교회는 매달 30%의 교회 예산을 선교비로 지출하며 선교에 올인하고 있는 교회 중 하나다.

\*주소: 10452 Louise Ave.

Granada Hills, CA 91344

\*문의: 434-229-6597

김만영 기자

### 두란노아버지학교 LA목회자…12기, 13명 목회자 아버지 수료

[1면으로부터 계속] 한편 미주 아버지학교본부에서는 일반 아버지학교와 목회자 아버지학교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아버지와 자녀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으

로 "비전터치(Vision Touch)"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중이다.

또한 부부가 연합하여 자녀들에게 올바른 부부관계와 가정관을 심어주기 위한 "부부 가정교실"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그리고 미국 내 타문화권 가정사 역을 위해 1.5세와 2세들을 중심으로 영어로 진행하는 "아버지학교"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특히 "Native American"들의 상처를 위로해주고 무너진 가정회복을 위해 매년 여름 단기선교 프로그램 운영도 계획중이다.

"아버지의 사명은 가정을 세우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사는, 세상에 파송된 아버지 선교사다".

\*문의: 213-382-5454

[두란노아버지학교 미주본부 제공]

### SAS 인가컨설팅

I-20신청, 선교회, 연구소  
직업학교, 종교특례대학  
일반대학 설립/인가

summitus37@gmail.com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 HAPPY MINISTRY CONFERENCE

### 당신의 교회는 행복합니까?



백동조 목사  
(목포사랑의 교회)



한기홍 목사  
(은혜한인교회)



힘든 이민교회 현장에서 행복목회가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교회가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교회는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행복을 줄 기관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행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연스럽게 나누는

행복한 공동체로 세우는 행복목회가 대안입니다.

제자훈련, 성령운동, 셀을 통합하는

새로운 목회 폐려다임은 행복목회입니다.

일시 2016.8.15(월) 10AM

~ 8.16(화) 10PM

장소 은혜한인교회

주최: 행복목회아카데미

주관: 은혜한인교회 후원: OC 교회협의회, OC 목사회, 남가주 목사회, JAMA

대상 담임목사, 사모, 부교역자  
정원 200명(선착순 등록)

등록비 1인 \$100 부부 \$150(교재 및 식사제공/숙박 개별)

참가문의 714-446-1000, 1004

은혜한인교회 사이트 <http://www.gracemi.com>

150 S. Brookhurst Dr., Fullerton, CA 92833

# “디아코니아(Diakonia, 섬김) 목회”



'갑' 포기하고  
'을'되면  
세상 위한  
교회된다.

## 김한호 목사

춘천동부교회 담임  
장로회신학대학교(Th. B, M.Div)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실천신학 박사과정  
독일 오스나브뤼크 대학교  
실천신학(디아코니아 전공) Ph.D  
서울장신대 부설 디아코니아 연구소장  
서울장신대 겸임교수

한국에서 디아코니아(Diakonia) 목회 봄을 일으키고 있는 김한호 목사(춘천동부교회 담임)가 미주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특강과 인тен시브 강의를 하기 위해 최근 남가주를 방문했다. 그는 인터뷰 내용 진술한 태도로 디아코니아 목회의 본질과 그 가능성을 소개했다.

그가 시무하는 춘천동부교회는 김 목사 부임 후 디아코니아 목회를 표방하며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젊은 층이다. 2014년의 경우 새가족 과정 수료자 87명 가운데 20대가 3명, 30대가 40명, 40대가 18명이었다. 2015년에는 9월까지 새가족 수료자 86명 가운데 20대가 4명, 30대가 29명, 40대가 13명으로 역시 젊은 층의 수치가 높았다. 이 두 통계 모두 청년부는 집계하지 않은 수치이며 새가족들의 정착률은 90%가 넘었다. 이런 부흥에는 디아코니아 목회의 역할이 컸다.

김 목사는 장로회신학대학교에

젊은층 새가족의 높은 정착률을 가져오는 디아코니아 목회  
獨디아코니아 통해 신학과 목회, 현장 모두 아우르는 목회에 눈 띠  
디아코니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 사역  
예배, 교육, 행정,對사회활동 등 목회 전반에 통전적으로 적용돼야  
최근 다문화가정 위해 다문화 도서관도 세워

다니던 당시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한 고민에 훔싸였다. 한국교회가 지금은 성장 중이지만 그 미래가 어찌 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1991년 개신교회의 본산인 독일로 유학을 떠났다. 그곳에서는 한국교회의 미래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독일에서 공부에만 집중하고 싶었지만, 현실은 좀 달랐다. 먼저 그 지역 한인교회에서 목회자가 없어서 고통받는 것을 보고 그곳 목회를 맡게 됐다. 자녀를 출산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의료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독일의 개신교계 사회복지 시설인 '디아코니아' 사무실을 찾아가 도움을 얻어야 했다. 그러나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 그는 신학과 목회, 현장을 모두 아우르는 디아코니아 목회에 눈을 뜨게 됐다.

"독일에서 디아코니아, 즉 섬김은 그들의 삶 속에 뿌리박혀 있는 '그 무엇'입니다. 요한 힌리히 비헤른이 시작한 디아코니아 운동이 사회 곳곳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 장애인, 노숙자, 심지어 저와 같은 이방인 나그네일지라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돋습니다. 그러나 이 디아코니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복지와는 좀 다릅니다."

기독교가 섬김이나 사회봉사를 강조하다 보니 교회들이 병원, 장애인 시설, 양로 시설 등 사회복지에도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지만, 교회가 하는 일명 기독교 사회복지 를 디아코니아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디아코니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 사역이기에 예배, 교육, 행정, 대사회 활동 등 목회 전반에 통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김 목사가 2011년 부임하던 당시 이미 80년 역사를 자랑하던 이 교회에 디아코니아 목회를 도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은 2천5백 명 교인들이 교회를 위한 교회가 아닌 세상을 위한 교회로서 한 마음이 되었다. 먼

저 당회부터 '찾아가는 당회'라고 불린다. 모든 당회원들이 사회복지 시설을 찾아가 봉사활동을 한 후에 당회를 한다. 화장실을 청소하고 밥을 퍼주다 보면 자연히 낫아지는 섬김의 마음이 되고 그 마음으로 당회를 하는 것이다.

디아코니아는 실질적으로 목회 전반에 적용된다. 매년 이 교회는 디아코니아 주제가 있다. 그 주제를 따라 공부하고 준비해서 한 해 동안 섬김의 목회를 한다.

예를 들면, 지난해의 주제는 도농협력이었다. 3주 동안 부흥회 대신 세미나를 열고 도시와 농촌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온 성도가 고민했다. 성만찬 때마다 농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것을 주제로 떡을 빼았다. 농촌교회를 찾아가 여름성경학교를 열어 주고 농촌교회 목회자들을 춘천으로 초청해 설교를 들었다.

춘천동부교회는 성도들이 주일 저녁예배를 농촌교회에서 드리며 그 교회에 현금하도록 했다. 농촌교회 목회자 자녀의 해외 문화 탐방도 장학금으로 지원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장애인, 탈북민, 도농협력, 민관협력, 다문화 가정 등을 주제로 1년의 디아코니아 목회가 이뤄졌다. 이렇게 하다 보니 자연히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에 찾아오기 시작했다. 세상과 유리된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의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라는 점이 청년들에게 어필한 것이다.

이 교회는 새신자 과정을 마치면 바로 디아코니아 성경공부를 시작하고 6주 동안 교회 주차 봉사나 화장실 청소 봉사를 하면서 이 교회의 섬김 철학을 배우며 교회에 정착한다. 그러나 김 목사는 "디아코니아 목회를 하면 교회가 성장하지만, 이것이 목회 그 자체가 아닌 프로그램이 되어 버리면 안 된다. 눈에 보이는, 기대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 실망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에서 철학박사(Ph.D., 오스나브뤼크대학교) 학위를 받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일까? 아니다. 독일과 미국 북가주에서 20년 이민목회를 해 본 김 목사는 "이민목회자야말로 디아코니아 목회가 자연스럽게 몸에 밴 실천자들이다. 저도 디아코니아 목회를 20년 이민목회에서 배웠다"고 말한다. 그는 또 이민목회자들을 향해 "지금 잘하고 있다"고 격려한 후 "지속성을 가지라"고 충고했다.

김 목사는 "많은 이민목회자들은 직접 교회 청소를 하고 식탁도 나르고 운전도 한다. 그러나 교회가 성장하고 나면 그런 섬김의 태도를 버리는 경우가 많다. 혹시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남과 비교하는 열등감에 시달리거나 탈진한다. 그러나 이민목회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목회라는 긍지를 갖고 최선을 다해 기쁨으로 하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꼭 사회와 소통할 것을 강조했다. 지역사회를 섬기려면, 그들의 목소리를 먼저 들으란 것이다. 시 관계자를 초청해 우리 동네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하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 섬기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갑'이 되어서 지역사회와는 상관없는 일을 하며 자기만족에 빠지고, 세상은 교회가 '성도 수 늘리기 마케팅'을 한다고 오해한다. 그러나 주도권을 지역사회에 넘겨주고 스스로 '을'이 되면 정말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일에 협력할 수 있다.

춘천동부교회는 얼마 전 한국의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문화 도서관을 세웠다. 미국에서 이민목회 할 때 북가주의 도서관 작은 코너에 있던 한국어 책들이 너무나 반가웠던 김 목사가 한국의 다문화 가정들이 모국어로 책을 읽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것이다. 이런 작은 힘터, 작은 섬김이 언젠가 그들을 복음화하는 일에 귀하게 쓰일 것이라 그는 믿고 있다.

"LA에는 유학생도 많고 불법체류자도 많습니다. 노인이나 탈북민 등 교회가 섬기고자 하면 섬길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가 물론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각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조금씩 맡아가면 사회로부터 칭찬 듣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김준형 기자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올즈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몰수가 될까?  
안녕하세요! 16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날려 드리겠습니다.  
전화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마지막 카드  
16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철리 청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찰리 청(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나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의원(설리한의)

**213-389-8275**  
520 S. Virgil Ave., #305 Los Angeles, CA 90020

수술없는 한방 성형  
차진 턱선을 올려 젊음유지  
이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 8.15 광복 71주년

## 기념연합예배

설교: 정해진 목사  
남가주 교협 증경회장 / 남가주 명성교회 담임

강신권 목사  
남가주 기독교 교회협의회 회장

2016년 8월 14일 (주일) 오후 4시 30분  
세계아가페선교교회 (담임 김요한 목사)  
World Agape Mission Church  
933 S. Lake St., Los Angeles, CA 90006  
주최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강신권 목사)  
문의 (213)263-1364 (안기정 목사)

일시

2016년 8월 14일 (주일) 오후 4시 30분

장소

세계아가페선교교회 (담임 김요한 목사)

World Agape Mission Church

933 S. Lake St., Los Angeles, CA 90006

주최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강신권 목사)

문의

(213)263-1364 (안기정 목사)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Southern California



미국재부흥운동을 위한 부흥집회가 20일 오후8시 뉴욕센트럴교회에서 진행됐다.

## “ICM주최 미국재부흥운동…미국 위해 간절히 기도해”

국제도시선교회(ICM·대표 김호성 목사)가 주관하는 제4회 미국재부흥운동이 18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20일 오후 8시 뉴욕센트럴교회(담임 김재열 목사)에서 미국재부흥운동을 위한 부흥집회가 뉴욕지역 목회자들과 대회 참가 청년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미국재부흥운동은 120년 전 한국에 복음을 전해준 미국이 현재 영적으로 쇠락하고 있는 가운데 한인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다시 복음을 들고 미국으로 나가 미국과 한국을 영적으로 다시 각성시키고자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교계운동이다.

이날 집회는 권순원 목사의 오프닝 합심기도에 이어 김재열 목사가 환영사를 전했으며, 김호성 목사가 미국재부흥운동의 취지

를 전했다. 이어 김두식 목사가 영어 메시지를 전하고 마크 박 목사가 합심기도를 진행했다. 부흥집회 이후에는 고신대 태권도선교학과 이정기 교수의 인사말에 이어 태권도선교학과 학생들의 태권도 시범무대도 이어졌다.

김재열 목사는 환영사에서 “바울도 도시거점선교를 통해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했다. 뉴욕 맨하탄과 하버드와 보스톤으로 퍼져나갈 복음전도운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운동”이라며 “미국재부흥운동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김호성 목사는 미국재부흥운동 취지 설명에서 “한국 선교 초기 조선이라는 나라를 가면 돌아올 수 없는 멀고도 먼 이방의 나라였고, 이곳에 아멘젤러와 언더

우드 등 많은 한국을 사랑한 선교사들이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했다”면서 “그런데 이 언더우드를 보낸 선교회가 바로 뉴욕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바란다. 한국선교와 뉴욕은 무관하지 않다. 이 곳에서 복음에 빛진 우리가 다시 복음을 들고 나서자”고 권면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이번 미국재부흥운동 기간 동안 신앙이 쇠락하고 있는 미국 동부지역에 복음의 씨앗이 다시 곳곳에 심겨져 미국이 영적으로 각성되기를 기도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오는 23일 맨하탄에서 진행되는 뉴욕 성시화를 위한 특별기도회와 뉴욕 총력전도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했다.

뉴욕 기독일보



미국장로교(PCUSA) 중대서양대회 가족수양회가 18일~21일까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머틀비치에서 열렸다.

## “PCUSA, 중대서양대회 가족수양회 개최”

2016년 미국장로교(PCUSA) 중대서양대회 가족수양회가 18일~21일까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머틀비치에 위치한 Sand Dunes Resort에서 은혜 가운데 마쳤다.

총 32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수양회에는 장학일 목사(예수마을교회 담임)가 주강사로 나서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이 집회 역시 청소년들의 심금을

울리는 도전과 은혜의 말씀이 강물처럼 흘러 넘쳤다.

중대서양대회 Warren Lesane 총무는 중고등부 영어집회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신앙의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모습을 보며 충격적인 감동을 받았다고 강증했다. 그는 대회에서 한미노회를 후원하는 일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앤더슨 김 기자

## 온네시모의 독백

김영언 저



### 27. 세네카여 그대는 어디에 있는가

최고의 철학자 세네카의 제자였던 마르쿠스가 스승의 죽음 뒤에 골로새로 돌아왔다는 소문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그런 그가 아내의 전도에 뛰어들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것은 내게 꽤나 흥미로운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세네카가 이끌던 스토아학파가 어떤 이들이던가. 세상이 불로부터 시작하여 생성과 소멸을 반복한다는 유물론이 그들의 바탕이니 죽음이후를 설명하지 못하지만, 윤리로는 금욕과 마음의 평정상태, 그리고 인류애를 인간이 추구할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스에서 시작한 스토아철학은 로마에 이르러 만개하면서 우리 사상의 근간이 되고 있지만 솔직히 말해 철학이 좋아 따르는 이는 어디서나 엘리트 위주의 유별난 소수일 뿐이다.

마르쿠스는 교회에 들어온지 얼마 안되어 사도바울의 편지 필사본들을 가져다 읽더니 얼마 전부터는 70인역 이스라엘 유플과 역사서를 빌려 심취해 있던 중이다.

읽어본 소감이 어떠냐는 내 질문에 어제는 이런 소리를 한다. 바울은 꼭 세네카를 보는 것 같다고. 바울이 편지들에서 걸으므로는 은혜에 의한 구원을 강조하는 듯 하지만 결국 그 뒤에는 이스라엘의 여호와보다 금욕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면서. 가말리엘 문하생들이 공부한 것은 그들의 유플뿐 아니라 우리 시대의 철학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고 말하는 목소리에 확신이 차있다. 그리고 여호와가 수천년전부터 이스라엘에 요구하고 있는게 지금 로마의 스토아철학이 강조하는 가르침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그의 관찰이다.

마르쿠스가 회고한다. 스토아 학파의 금욕주의를 평범한 사람들이 그렇게 코웃음치더라도. 인간은 아담때로부터 늘 일탈을 꿈꾼다. 신과 인간의 밀고 당기기가 잔소리 많은 어머니와 말썽꾸러기 아들을 연상시킨다. 저 하늘을 창조한 신이 어머니와 같은 인내심으로 이 땅의 보잘것 없는 인간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보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이세상 최고의 미스테리가 아닐수 없다. <계속>

##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종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웅  
지사장 : 로스엔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Welcome to a better world

**Green M. Wild IMAGE SYSTEMS**  
Sales Representative : Eric Kim  
GreenMWild@gmail.com  
TEL : 213 705 7778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Used printers trade in & purchasing

**bizhub C554e/C454e/C364e/C284e/C224e**

C554e Colour B&W 55/55 ppm	C454e Colour B&W 45/45 ppm	C364e Colour B&W 36/36 ppm	C284e Colour B&W 28/28 ppm	C224e Colour B&W 22/22 ppm	Dual Scan ADF 160ppm	Dual Scan ADF 80ppm Simplex	Emperon Driven!	USB Print	Colour Internet Fax	Mobile Support
----------------------------------	----------------------------------	----------------------------------	----------------------------------	----------------------------------	-------------------------	--------------------------------	-----------------	-----------	---------------------	----------------

**KONICA MINOLTA bizhub**

최첨단 고해상도 칼라 디지털 복합기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크  
최고의 인쇄 품질과 획기적인 비용절감

**모든 사용자를 만족시키는 업무 효율의 혁신**

**Simetri with Bizhub**

**bizhub MarketPlace**

# 건축자들의 버린 돌

마태복음 21:42-46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시편118:22~23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건축자들에게 필요한 돌은 주춧돌입니다. 이것을 건축자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쓸모없다고 내어버리게 될 때 그 집은 머릿돌을 제공하신 이의 뜻대로 지어질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교회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율법사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에게 은혜계약을 성취해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릿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머릿돌의 가치와 용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영문밖에 갖다 버려 은혜계약의 성취라는 놀라운 축복을 스스로 거부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1.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만일 머릿돌로 주신 예수님의 누구신지  
알아보았다면 이스라엘이 먼저 구원의 은혜를 받고 세계선교의 본거지로 인류복음화의 주역이 되었을 것이지만 불행히도 그들은 이 돌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건축자들은 이스라엘의 신앙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건축 기술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집, 영적교회를 세우는 건축자들로 이스라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장로들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머릿돌도 제공해 주셨음에도 그 설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자기 멋대로 설계를 하고 그 돌의 본질과 용도와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돌은 베드로전서 2:4~5에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찌니라”했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돌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을 짓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교회 건축자들은 예수님을 머릿돌도 알아보지 못하고 갖다 버림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소망을 그르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돌의 가치와 용도를 전세계에 택하신 자기성들에게 알게 해주심이 오늘과 같아서 교회를 통하여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세계선교를 하는 것 또한 이 돌을 소개하는 복음을 전해온 것입니다. 이 돌은 살아있는 돌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했습니다.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은혜계약의 대상인 듯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계약에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인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12에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 돌을 주실 대상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할례를 받음으로 남자들마다 육체의 표식을 가졌고 구별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할례의 의미는 하나님께 약속하신 산 돌(Living Stone)을 줄 터이니 그 돌 위에 너의 영적인 영원하고 신령한 소망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영생복락의 후사가 되도록 하라고 이스라엘에게만 허락된 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돌을 알아보지 못하고 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는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소개되고 있는 살아있는 돌을 바로 알아보지 못하는 무지 때문에 영적인 소망을 그르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어야 합니다.

머릿돌을 내어버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된다(43절)고 합니다. 허락된 그 나라 이스라엘은 하늘나라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신령한 소망을 가꿀 줄 몰랐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하늘나라를 허락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에게만 머릿돌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갖다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다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버리지도 않으시고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산 돌로 알아보고 그리스도를 바탕으로 신령한 성전을 짓고 성령을 받아서 영적인 소망만 가꾸는 백성이라면 하늘나리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도 이스라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믿어지고, 회개하고, 신령한 소망을 목적으로 믿고 행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머릿돌을 삼은 신령건축가가 되기만 하면 하늘나라의 열매 맛는 백성으로 구원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십니다.

2.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 돌이 세계만방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돌을 세계각국에 소개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물질로 애를 쓰며 돋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돌에 대한 가치를 바로 알아보고 믿어지고, 회개해서 그 돌 위에 자기 집을 건축하는 사람은 신령한 집을 짓을 수 있어서 성령으로 하늘 소망에 결실할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선교사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고, 교회마다 피와 땀을 흘리며 기도와 물질로 선교 뒷바라지를 하고 애를 써서 이 돌의 가치와 용도를 소망적인 복음으로 애타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돌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않고, 외면하며 사는 인생들의 결과는 어떠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하셨습니다.

이 돌은 건축자의 머릿돌이었습니다. 이를 알아보고 신령한 소망에 믿음을 잘 건축하는 사람은 그 돌로 말미암아 영생 복락의 구원을 얻지만 그 돌의 가치를 알아볼만 하도록 증거하고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지와 불신으로 거부하며 밭을 하고 대적했다가 스스로 세상조건에 의지하고 자기 자신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지내다가 어느날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돌 위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 인생은 깨어져 박살나고 말 것입니다. 그 돌이 사람 위에 떨어져도 가루가 되어 흩어진다고 하셨으나 그 인생의 심판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할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7:52절 이하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설교를 했습니다.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자 저기지 아니하였도다.”했을 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렇듯 마음에 가책을 느꼈음에도 그들은 회개할 생각은 않고 도리어 이를 감마루를 던져 스데반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깨달았음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기회를 염보더니 결국은 예수님을 심자 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생명의 반석으로 소개되는 예수님, 산 돌이 시며 보배로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온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셨음에도 그들은 이 돌의 본질과 가치와 용도를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영문 밖에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3.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이 돌에 붙어사는 이들은 구원을 얻고 심판에도 동참을 합니다. 이들은 이 돌의 움직임을 따라 함께합니다. 이 돌에 붙어살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3-4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하셨습니다.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믿어지고, 철저히 회개해서 죄를 완전히 용서받은 자라야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끗하기만 하다고 산 돌인 예수님 곁에 있어도 붙어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접착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절대주의 신앙, 말씀에 불잡혀서 말씀대로만 사는 믿음은 예수님께 붙어사는 자가 되고 성령이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자를 예수님께 완전히 붙이는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이로 인해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며, 그 돌이 떨어져 부서지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되어지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은 가장 안전한 구원의 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한국 신문 설교	
TV 한국 방송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토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FMR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a href="#">YOU TUBE</a> 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 供 國 制 성은복음선교회

#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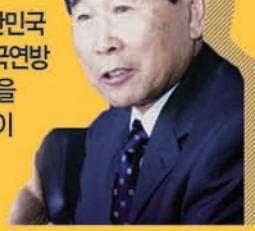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Special Price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40여 년간 당뇨 연구를 해온 대한민국 대표과학자로 한국인 최초로 미국연방 정부 지원을 받아 당뇨 신약개발을 위해 FDA 2차 임상을 진행하는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전, UCLA 의과대학 연구교수, 미 재향군인병원 수석연구원 세계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 등재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체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6개월 이상 복용하시면 체장 베타 세포의 기능 복원을 개선하는데 PRO-Z GOLD가 해결해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수만 종류의 당뇨약이나 인슐린으로 혈당유지에 그쳤으나 PRO-Z GOLD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분비된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 내 몸에서 스스로 혈당을 조절하게 하는 당뇨의 근본 원인을 해결 하는 솔루션입니다. 식후 혈당 상승억제와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입니다.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213.434.1170

[www.prozusa.com](http://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mailto: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100%  
천연성분

FDA  
IND임상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

송해선생님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프로지골드

# 토브 성경 연구 Tov Bible Study



강신권 목사

- 히브리식 사고 : 3통 사고
- 히브리식 체현 : 5특체현으로 성경 원전 해석
- 현재 : 요한계시록 특강(매주 수요일 7:30pm)
- 강사 : 강신권 목사
- 장소 : WBPC 세계성경장로교회

**Tel(562)761-5242  
Tel(213)739-0403**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 Director of Children's Ministries

**Beautiful Church**  
Rowland Heights, California, United States  
Position: Children's Pastor  
Denomination: Baptist-SBC  
Job Type: Full Time

### Job Description:

Qualifications

### Education and Experience:

\* Bachelor's degree in Children's Ministry or a related field is required;  
\* Work experience in a church-based children's ministry utilizing volunteers is required;

### Faith and Life:

\* Must be called by God to minister to children and preschoolers;  
\* Must have a growing personal relationship with Jesus;  
\* Must be in agreement with the Purpose Statement, Core Values, statements of faith, Constitution, By-Laws and general vision of Beautiful Church;  
\* Must be willing to become a member of Beautiful Church;  
\* Must pass the church's criminal background check process  
the satisfaction of the Senior Pastor;

### Ministry Skills:

\* Servant attitude towards God, leaders, other team members, the church, and guests;  
\* Self-motivated with a team approach including the ability to motivate volunteers;  
\* Competent in leadership abilities to include organization, delegation, administra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 Proven ability to work well with parents, volunteers, church staff and children;  
\* Effective oral and written communication skills;  
\* Strong decision making skills;  
\* Demonstrated ability to recruit and coordinate volunteers;  
Please submit a résumé, statement of faith and/or personal testimony, a recent sermon video clip or web link, and ministry 3 references.

### Contact: Sarah Park

beautifulchurch@hotamil.com / (626) 810-3455

### Beautiful Church

1717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www.beautifulchurch.org

##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직업가능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Players Tour  
12~14살, 18홀, 1~2명 모집

■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D.D.)

현 '제일좋은 예닮교회' 담임목사

## 무지개 언약



민종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윌리엄 워즈워스(William Wordsworth)라는 시인은 시로서 무지개의 아름다움을 노래했다. 하늘에 둥그렇게 뜬 무지개는 정말이지 아름다운 하늘 다리이다. 무지개 색깔은 각 민족에 따라 다르다. 우리는 일곱 빛깔 무지개라고 하지만, 여섯, 다섯, 셋 등 다양하게 말한다. 정밀하게 측정하면 200가지의 색깔이 있다고 한다.

무지개는 비가 온 후, 공중에 떠 있는 물방울에 태양빛이 비칠 때에 굽절된 빛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프리즘과 같은 역할을 하는 물방울이 빛을 다양하게 굽힐시키기 때문이다. 드물게 보이는 쌍무지개는 더욱 아름답다. 첫 번째, 무지개처럼 밝지는 않지만, 원래의 무지개 색깔과는 거꾸로 된 배열로 같은 동심원을 그리고 있다. 두 무지개는 공통적으로 양쪽 끝이 땅에 닿아있고, 높은 부분은 하늘을 향하고 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무지개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흥수 이후 노아와 그의 식구를 대상으로 “무지개 언약”을 세웠다.

무지개는 죄인과 생물의 생명을 더 이상 대홍수 때처럼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징표이다. 비가 온

후 무지개가 뜨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여 생명을 살리시겠다는 의미이다.

무지개 언약이 제시되는 창세기 9:8~17절에는 “언약”이라는 말이 7번, “무지개”라는 말이 3번, “영원”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온다. 하나님께서는 내 언약, 내 무지개라는 말을 사용하시니 이 무지개로 상정되는 언약은 대홍수 이후를 관통하는 중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이다.

무지개 언약의 특징은 첫째로 “은혜의 언약”(the covenant of grace)이다. 이는 하나님의 약한 인간을 심판하지 않으리라는 다짐이다. 인간의 심성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모든 생물을 인간과 연결하여

다시금 심판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이 언약의 시행자는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님이시다.

둘째로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 자신이 인간을 용서하고 위로하며, 이 언약으로 자신을 얕어매겠다는 것이다. 이 언약은 그러므로 “용서의 언약”(the covenant of forgiveness)이다. 정의로우신 하나님님이 악한 인간을 보시고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멸하는 흥수를 다시 일으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신다.

셋째로 무지개 언약은 “안식의 언약”(the covenant of safety)이다. 무지개는 커다란 활 모양이다.

그 커다란 활은 하늘을 향하여 있다. 커다란 활을 당겨 화살을 쏜다면 화살은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나아간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형상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위하여 예리한 못과 창에 찔려 돌아가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주셨다.

## 완전함은 능력 아닌 자격



남성수 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라인홀드 니이버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교만에 세 가지가 있다고 지적한 적이 있다. 권력에 대한 교만, 지적 교만, 도덕적 교만.

권력은 모든 것을 다할 것 같아 느끼게 한다. 그래서 권력은 교만에 빠지게 한다. 둘째로 지적인 자는 지식이 실천을 대신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지적인 교만이다. 세 번째로 도덕적 교만을 가진 자는 자신이 깨끗하다고 생각한다.

참으로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특별히 도덕적 교만을 가진 자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은 완전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다른 이에 대한 정죄이다. 다른 이의 허불과 잘못에 대해 그냥 넘어가지 못한다. 지적해야 하고, 비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도 정의의 이름으로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심각한 교만이다.

도덕적 교만의 심각한 오류는 바로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의의 이름으로 사회의 개혁을 부르짖고 나라는 다시금 세워 보겠다고 했던 그 수 많은 젊은이들이, 점자 그 사회의 권력의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더 더럽고 추한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본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교만 때문이다. 자신들은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완전한 자라는 뜻이다.

도덕적 교만의 심각한 오류는 바로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의의 이름으로 사회의 개혁을 부르짖고 나라는 다시금 세워 보겠다고 했던 그 수 많은 젊은이들이, 점자 그 사회의 권력의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더 더럽고 추한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본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교만 때문이다. 자신들은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완전한 자라는 뜻이다.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다. 재물을 다 팔라는 것은 저의 완전함을 막고 있는 교만을 팔라는 것이다. ‘이 정도면 내가 구제도 하고 가난한 자도 도왔으니 도덕적으로 선한 것이 아닌가?’ ‘내가 완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완전함을 막고 있는 교만이라는 것이다. 그 교만을 무너뜨려야 한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 완전해지는 길로 나와야 한다. 그것은 오직 한 가지 길 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성경에서 완전함을 이야기 할 때는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을 말한다. 그 자격은 내 스스로 되지 않는다.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완전한 자로 여김을 받는다. 여전히 능력 면에서 죄가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한 가지 선언이 주어졌다. 의로운 자로 여기신다는 것이다. 이것이 완전한 자라는 뜻이다. 자격이 주어졌다. 완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완전한 자이다. 이것을 알고 완전케 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자가 바로 복된 자이다.

##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원리



김문수 목사  
나성제일교회

아무리 개인적으로 뛰어난 실력을 갖춘 연주자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일지라도 그들이 서로 하나님을 이루지 못하면 음악적 감동이 적을 뿐만 아니라 청중들에게도 호응받지 못할 것이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원리도 이와 동일하다.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려면 먼저 서로가 한마음을 이루어어야 한다(빌2:2). 빌립보교회 성도들은 개인적으로는 뛰어났지만 하나님 되지 못했다. 이것이 공동체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요인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같은 마음, 같은 뜻, 한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권면하고 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형제들도 한 마음을 갖는 것이 어려운데 하물며 서로 다른 배경과 환경,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한 공동체에 모여 한 마음을 이룬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되는 일에 있어서 집중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너희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빌2:5).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고, 알며 그 마음을 품게 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

도께서 하나님께 하신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 신비요 복음의 능력임을 믿는다. 모든 교회가 어린 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

둘째. 겸손해야 한다(빌2:3).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겸손함이다. 성 어거스틴에게 제자가 찾아와 그리스도인의 덕목 가운데 첫째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어거스틴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겸손이란 어떤 마음인가?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다. 겸손은 예의가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그 이상이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소망이 없는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존재임을 인식함으로 드러나는 태도가 겸손이다. 겸손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을 때 품을 수 있는 태도이다.

이렇게 겸손한자는 다툼이나 허영을 구하지 않는다. 왜 다툼이 생기는가?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기 때문이다. 허영은 알맹이 없는 영광을 구한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하는 존재가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 다툼은 이유는 내면에 허영이 있기 때문이고 허영을 구하면 다툼을 일으킬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겸손한 자는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이다.

셋째,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다(빌2:4).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13:34). 성경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돌아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다. 너희 짐을 서로 지라(갈6:2),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롬12:13).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갈6:10).

#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를 통해 받은 사명은 중단할 수 없습니다”

## 제 2회 미주 목회자 사역세미나

- 일 시 : 2016년 8월 20일 8AM ~ 4:30PM
- 장 소 : 사랑의 빛 선교교회 (Light Of Love Mission Church)
- 참가비 : \$20 (사역을 쉬고 계시거나 목회를 준비중인 분 면제)
- 대 상 : 이민교회 목회자, 개척 준비하시는 분,  
사역지를 찾아 기도하는 신학생, 교회를 섬기는 평신도 리더

### 오전강의



주강사  
김기섭 목사  
(LA사랑의 교회)  
**부목사는 소중한 사역이다**



주강사  
이승종 목사  
(어깨동무 사역원 대표)  
**이민목회의 출구**



주강사  
Rev. Dr. Scott A. Lemenager  
Special Assistant to the President  
Clerk of Standards and Credentials  
Evangelical Church Alliance (안수위원장)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사안수**

ECA 소속 목사는 매년 보고서를 통해 사역검증을 받습니다.  
현재 보고서를 내지 않아 목사자격이 상실된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 오후강의



김경렬 목사  
(산타모니카 한인교회)  
**캠퍼스사역 현신이 아니라 학생이다**



김송식 목사  
(SBC 교회개척코디네이터)  
**교회개척과 등록**



민승기 목사  
(OC교회협의회 회장)



조진용 목사  
(리버사이드 한우리교회)  
**가정목회도 중요합니다. 1.5세 목사의 이민목회**



Rev. Esau  
(Church on pearl, IFNV)  
**다문화사역, 푸드뱅크**



성요셉 목사  
(소망장로교회)  
**주일학교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이희문 목사  
(LA 기쁨의교회)  
**전도하는 교회**



신상원 목사  
(미주합동대학신학대학원 교무처장)  
**교회와 교단과의 관계성**



김영찬 목사  
(효사랑선교회)  
**교회실버사역**



Rev. Stephen Feinstein  
(육군소령)  
**군목사역**



Rev. Joseph Choi  
(현 육군대위 및 병원원목)  
**원목사역**



이준성 목사  
(ANC 온누리교회)  
**선교적인 교회**

**군목 원목 강의 예약 필요 / 오후 강의 12개 중 3개 선택수강 가능**

주최: US 채플린 연구소 / 주관: Bible Love Unity Edifying Ministry

후원: ECA 한인연합회, OC 교회협의, 크리스천헤럴드, CHTV18.88 기독일보

연락처: (213) 800-1825



'지난 4월 이슬람대책강원도민운동이 강원도에 이슬람 금융 유입을 중단을 촉구했다. ⓒ이슬람대책강원도민운동



외교부와 한국위기관리재단, 한국세계선교협의회 3자가 MOU를 체결했다.

## “강원도, 2017세계이슬람경제포럼 유치 공식 취소”

### 도민 안전 우려 정서 고려…2018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에 집중

강원도가 지난 3월 할랄타운 조성을 중단한 데 이어, 내년 9월 평창에서 열기로 했던 2017 세계이슬람경제포럼(WIEF) 개최도 최종 취소했다.

강원도는 18일 김한수 글로벌 투자통상국장과 윤인재 담당사무관을 WIEF 사무국이 있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파견, 19일 WIEF 사무국에 2017년 포럼 개최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강원도는 WIEF 유치가 사실상 확정적이었으나, 이를 자진 취소했다.

2006년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WIEF는 이슬람권 57개 국가 경제, 금융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 왔으며, 매년 이슬람 국가들 및 이들을 대상으로 수출, 금융 협력을 하

는 국가 정상급 인사와 글로벌기업 CEO, 비즈니스인들이 대거 참여하는 포럼을 개최해 왔다. 강원도는 할랄산업과 함께 WIEF를 유치하여 도내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이슬람 자본 유치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3월 할랄산업 추진을 중단하기로 했을 때, WIEF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재검토한다는 입장은 밝혔었다.

강원도가 국제 사회에서 신뢰를 깨트리는 외교적 결례와 당장의 이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WIEF를 철회한 이유는 두 가지다.

도 관계자는 “먼저 WIEF가 테러와 전혀 상관 없는 행사이긴 하지만, 최근 아시아권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테러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슬람에 대한 국민의 정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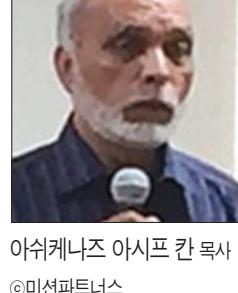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국민과 도민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무시하고 갈 수 없어 철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다른 이유는 2017 세계이슬람경제포럼이 2018년 2월 평창, 강릉, 정선에서 진행되는 평창동계올림픽을 5개월 앞두고 열려, 전 세계인의 이벤트인 올림픽을 우선적으로 안전하게 치리야 할 입장에서 큰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도의 할랄타운 조성 및 이슬람금융 투자 유치 정책의 전면 중단을 촉구해 온 이슬람대책강원도민운동 정형만 대표(바른나라세우기국민운동 대표)는 이날 “강원도의 WIEF 철회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지희 기자

## “무슬림 선교, 프로젝트 대상 아닌 사람으로 봐야”

### 파키스탄 출신 신학자…미션파트너스 세미나서 제안



아시케나즈 아시프 칸 목사  
©미션파트너스

23일 서울 신반포교회(담임 흥문수 목사) 비전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무슬림 선교 관계자 및 관심자 약 70명이 참석했다.

강사로 나선 아시케나즈 아시프 칸 목사는 파키스탄 출신 신학자(마닐라 Asian Theological Seminary 신학석사)로, 2005년부터 현재까지 파키스탄의 스바랏성경신학교(Zarephath Bible Seminary) 학장을 맡고 있다.

아시프 칸 목사는 이날 파키스탄

“무슬림과 함께 살아가는 소수 크리스천, 그 삶의 이 야기”를 주제로 한 무슬림 세미나가

23일 서울 신반포교회(담임 흥문수 목사) 비전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무슬림 선교 관계자 및 관심자 약 70명이 참석했다.

아시프 칸 목사는 “무슬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수 많은 변증 자료들, 토론, 신학적 논쟁과 학문적 접근 가운데 의료와 교육분야에서 뛰어난 성과가 있었다. 기독교인들의 이러한 도움에 대해 무슬림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슬림들은 한 국가

의 시민으로서 기독교인과 무슬림에게 적대적으로 행동하는 국가를 잘 구별하지 못한다. 우리는 그들과 만날 때 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했다.

또 “그들의 상처(실제이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를 공감해야 하고, 과거 기독교인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치유 과정의 시작”이라고 했다

이어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춘 공동체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고, 무슬림들을 프로젝트가 아닌 사람으로 보아야 한다. 그들을 경건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로 인식해야 한다. 그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도할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또 “우리는 사회적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같은 긍정적인 접근법은 성공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두 공동체를 가깝게 할 것”이라고 했다. 강혜진 기자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 “선교사 보호 위한 MOU체결”

### 한국세계선교협의회…외교부 및 한국위기관리재단과 MOU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테러 단체들의 일상화된 테러 등으로 해외 선교사 및 휴가철 단기봉사활동 참가자들에 대한 신변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선교사 위기의 사전 예방과 효과적인 대처를 위하여 외교부와 한국위기관리재단, 한국세계선교협의회 3자가 지난 20일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MOU를 체결했다.

이 행사에는 외교부 조태열 제2차관, 한국위기관리재단 김록권 이사장,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운영이사회 나성균 회장이 참석해 각각 서명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위기관리재단 김진대 사무총장과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전효중 총무가 배석했다.

상호 협력 내용으로는 해외 선교사 및 그 가족의 안전과 관련된 위기정보를 3자가 상호 공유하고, 선교사의 위험지역 방문 자체, 외교부의 안전정보 전파 및 계도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한선협 및 위기관리재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내외 교육훈련 시 재외국민보호 대책 등의 교육자료 제공 및 강사 파견 등에 적극 협력하며, 해외 위기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3자 핫라인을 구축함으로 원만한 사건·사고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내용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MOU 체결 후 오후 1시 30분 종로구 종교교회에서는 교계 선교담당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또 이번 외교부와의 MOU 체결을 계기로 한국위기관리재단과 한국세계선교협의회, MCC가 공동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사 지킴이’ 모집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도 공개됐다.

홍은혜 기자

## 제2회 삼척시민을 위한 시민콘서트

2016. 07. 19. 화요일 07:30PM / 대학로공원 야외공연장



드림교회와 참좋은교회가 문화아웃리치에 나섰다. ©드림의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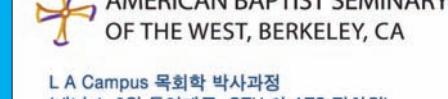
## “시민들과 문화로 소통하는 아웃리치”

### 시민콘서트, 도시미관 개선 봉사활동 등 벌여

서울 드림의교회(담임 이상화 목사)와 삼척 참좋은교회(담임 심봉섭 목사)가 연합해 ‘삼척시민을 위한 제2회 시민콘서트’를 19일 저녁 개최했다. 삼척 대학로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콘서트는 삼척 시민들로 구성된 통기타 밴드 ‘더 원 기타’의 연주를 시작됐다. 또 흥대 클럽 등 언더그라운드 무대에서 많은 공연을 하고 있는 실력파 어쿠스틱 듀오 ‘마더 팝콘’과 최근 정규앨범을 발매한 R&B 밴드 ‘그레이 데이’가 출연해 자신들의 자작곡 및 K-pop 등을 연주했다. 작년보다 더욱 많은 연주자들이 참여한 공연을 통해 삼척 시민들과 소통했다.

이수민 기자

## 2016 미주기독대학박람회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회원, 회생학회원(Div), 상담학회원, 선교학회원, ESL, TESOL

• 영방정부 승인 SEVIS-V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국 및 한국에서 시약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박사학장 김준 목사 (213)407-4569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류종길 박사, 이사장 : 김광희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master@gmail.com

### 미주대학신학대학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충실히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쉽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 미주장로회신학대학

WORLD MISSION UNIVERSITY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총 목사교사, 인수기능)

I-20빌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지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 #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특전 : 복음학박사, 선교학장학금 및 각종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 성경학회원학회원(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 (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 솔로몬대학교

SOLOMON UNIVERSITY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 백지영 박사 부총장 : 브렌트 프赖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신학대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8-2322

www.wmu.edu admissions@wmu.edu

### 그레이스미션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영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 “목회자, 정치적 이슈에 목소리 내야”

남침례회 러셀 무어 위원장…최근 웹사이트 영상 통해 강조



러셀 무어 위원장.  
©크리스천포스트

美 남침례회 윤리와 종교 자유 위원회 러셀 무어 위원장이 목회자가 강단에서 반드시 전달해야 하는 정치적 형태의 메시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크리스천포스트는 러셀 무어 위원장이 최근 자신의 웹사이트에 ‘교회를 위해’(For The Church)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영상에서 무어 위원장은 “기독교인들은 때로는 정치적 이슈와 연계되는 것을 거부한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도덕성과 사회적 윤리 사이에 인위적인 장벽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들, 예수님, 야고보 사도도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만약 여러분이 19세기 베마에 있다면, 남편의 장례식 때 남편과 함께 묻힌 아내들을 보았을 것이다. 이에 대해 여러분은 ‘이는 정치적 이슈니까 나랑 상관없다’고 말할 수 없다. 여러분은 ‘이는 잘못된 것’이라

고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어 위원장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이슈들은 특정하게 강조돼 있지 않고, 원칙들을 적용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소 임금을 올리는 것이 가난한 이들에게 진정으로 유익이 되는가?’ 같은 진지한 철학적 불일치도 있다”고 했다.

무어 위원장은 지난 6월 21일 올린 글에서도 ‘기독교인들의 정치·문화 참여’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그는 “기독교적인 문화가 세속화된 문화에 점점 어색해지면, 우리는 자유롭게 예언자가 될 수 있다. 이는 우리가 예언적인 거리와 예언적인 참여 사이의 긴장 속에 살게 될 것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는 예언자적으로 구별돼 있어야 한다.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이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 요인을 판단하는 사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선지자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그 가운데 복음과 정의의 연계를 볼 수 있다. 복음의 우선 순위라는 것은 우리가 불공평과 불의를 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싸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싸운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강혜진 기자

## “성경은 하나님 아니다?”

UMC 최초 동성애자 감독…신학적 문제점 드러나



카렌 올리베토 감독.  
©UMC

美 연합감리교(United Methodist Church, UMC)에서 최초로 ‘동성애자’ 감독(서부연회)으로 선임된 카렌 올리베토 목사의 신학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최근 크리스천포스트 칼럼니스트 존 램퍼리스(John lemparis)는 주이시에 쿠메니즘 사이트를 통해 “레즈비언 활동가 카렌 올리베토 목사가 최근 서부연회 감독이 되었다”면서 “올리베토 목사의 다소 급진적 신학적 세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샌프란시스코 연합감리교회 목사인 올리베토 목사는 지난해 그녀가 준수하기로 맹세한 UMC의 장정을 위반하고 다수의 동성훈장을 진행해 여러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램퍼리스는 “2005년 올리베토 목사가 ‘커밍아웃’ 전 UMC 동성애자 모임에서 밝힌 발언과 올리베토 목사가 주도한 2005년 9월 종회 성경 연구 모임에서 전한 그녀의 성경해석을 밝힌 것을 약간의 수정을 더해 다시 글을 게재한다”고 밝히면서 “당시 RMN(Reconciling Ministries Network)에서 열린 종회 성경 연구 모임을 주도한 올리베토 목사는 자신만의 성경적 해석”을 전했다.

모임 첫날, 올리베토 목사는 ‘사도행전 1장 6~11절’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 설교하며 “예수가 승천하며 제자들을 비웃은 것으로 보인다”며 “제자들이

시야에서 멀어지는 예수를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기보다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과거에만 매여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RMN 리더가 ‘동성애 행위 수용’에 대한 성경적 논쟁에 대해 물었을 때, 올리베토 목사는 “우리 교회는 여전히 오래된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전통에 뿌리를 두는 것은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박탈하는 것이다”라며 “동성애 행위를 승인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한탄하며 UMC가 과거에만 매여 있어 하나님의 전 가족을 섬기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특히 올리베토 목사는 “교회는 인종 차별과 여성 목회 안수를 허용하기 위해 성경적 규범과 교회 전통을 극복해야 한다”면서 “교회는 동성애 행위를 인정하기 위해 성경과 전통의 기준을 버릴 필요가 있다”는 확당한 주장을 폈다.

또 올리베토 목사는 “성경에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여성의 사역을 지지하고 있는 근거가 될 부분들은 간과했다”며 진보 신학의 경계선을 확대시켰다. 그리고 “그 영역이 ‘다원주의, 페미니즘, 해방주의(국교폐지론), 포스트 식민주의, 생태 및 환경 책임주의’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며 참석자들에게 진보 신학의 아젠다(의제)를 포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는 성경에 대해 “성경은 하나님아니다”면서 “성경 신학(biblical theology)에서 성경의 ‘장점과 결점’ 양면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경의 결점(?)을 직접적으로 지적하며 ‘택함과 선택의 신학’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장소피아 기자

## “죽음의 두려움과 대면하라”

릭 위렌 목사…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다



릭 위렌 목사.  
©새들백교회

새들백교회 담임목사 리 위렌 목사가 “불치병과 싸우고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돋기에 앞서, 먼저 죽음에 대한 자신의 두려움과 대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 중 하나인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인 릭 위렌 목사는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시편 89편 48절, 즉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스울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를 인용하며 죽음에 대한 글을 실었다.

위렌 목사는 먼저 “당신이 죽음과 대면하는 어떤 이를 돋기 전에, 먼저 당신 안에 있는 죽음과 관련된 두려움과 대면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그는 “죽음은 우리의 숨겨진 두려움을 드러낸다. 우리는 대개 (무언가가) 노출된다면 느낄 때 숨기 마련이다. 아

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음으로 하나님을 피해 숨었던 아래로, 나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도피해 계속 숨어왔다”고 했다.

또 릭 위렌 목사는 “적어도 임종을 앞둔 사람을 위해서는 그들 곁에 있는 것 이 최선”이라고 했다.

그는 “나는 임종을 맞이한 사람들을 수도없이 대면했다”면서 “그때 ‘내가 그저 당신의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다만 옆에 있어 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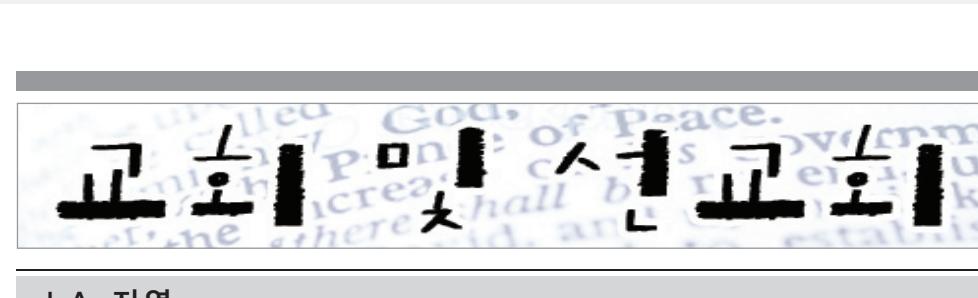
릭 위렌 목사가 죽음을 주제로 글을 기고한 것은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다. 지난 해 9월 그는 이미 “삶은 죽음과 같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통해 죽음에 대해 역설했었다.

당시 그 글에서 릭 위렌 목사는 “어느 날 당신의 심장박동은 멈추게 되고 당신 몸의 기능은 정지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이기에 당신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지속되도록 지음을 받았다”고 말했다.

강혜진 기자

## “목회자, 정치적 이슈에 목소리 내야”

남침례회 러셀 무어 위원장…최근 웹사이트 영상 통해 강조



### LA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점심이 예배 오후 2:22 주일 바瞌갈학교 & 토요서체 - 1기와 버몬트 코너 주중세미 -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김기설 담임목사 www.Lasarang.com	주일예배 오전 11:20 수요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후 11:20 새벽기도회 오후 6:00 학령 청년부 예배 오후 11:20	연재선 담임목사
LA 사랑의 교회		LA 온하늘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213)386-2233		T.(818)983-9024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장태원 담임목사	
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 90006 T.(213)909-6473 / www.missionla.org		강진웅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6:00(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진유철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월~토) 오후 6:00 매일 성경통독 (월~토) 오후 7:00	엘리야 김 담임목사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갈릴리선교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나눔과 섬김의 교회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예배 오후 7:30	서건오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후 5: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박영천 담임목사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 939-7323 / www.kwpla.org		나성순복음교회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EM 예배 오후 1:00 토요공연부 오후 10:30-12:30 한여행나루부 오후 1:30 어마나드모임 수 오후 10:30	김문수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한여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후 6:00	박현성 담임목사
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213) 487-3920		나성동산교회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00	나성서부교회	평생하여 듣는 하시는 교회	나성열린문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 939-7323 / www.kwpla.org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EM 예배 11:00	김경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나리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주일 오후 1:30 수요집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후 5:30(화~금) 오전 6:00(토)	정우성 담임목사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www.smkc.us		남가주광염교회	
주일예배 오후 1:30 성공공부 주말오후 12:00 토오픈클럽 모임 오후 11:00	김영구 담임목사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써니사이드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1부예배 오전 10:30 종교동부 예배 저녁 10:30 2부예배 주일 오후 11:00 새벽기도회 오후 5:30(월~금) 창체부 예배 주일 오후 1:30 목요전양예배(목요일) 오후 7:30 교회학교 주일 오후 10:30	김종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11:00 EM 예배 오후 10:00	조인수 담임목사
3407 W. 6th St. #412, Los Angeles, CA 90006 T. (310) 404-6219		나눔장로교회 엔키아 선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www.smkc.us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며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주일예배 오후 1:30 성공공부 주말오후 12:00 토오픈클럽 모임 오후 11:00	류종길 담임목사	3407 W. 6th St. #412, Los Angeles, CA 90006 T. (310) 404-6219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w@hotmail.com		예향선교교회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김영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후 6:00	김요섭 담임목사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		열매교회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전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후 5:30 3부예배 오전 1:30 수요예배(화~토) 오후 6:00(월~금)	김종수 담임목사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323)737-3009 C. (213)215-8523	정장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전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후 6:00(월~금)		올림픽장로교회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화~토) 오후 5:30	신승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후 6:00(월~금)	민종기 담임목사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님의 영광교회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화~토)			





포켓몬 Go 그림을 들고 있는 시리아 어린이의 모습. © 영국 인디펜던트

## “우리를 구해 주세요”

시리아 어린이들…포켓몬GO 그림 들고 도움 요청

시리아 운동가들이 전 세계인들에게 5년 동안 분쟁이 계속되어 온 시리아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 포켓몬 캐릭터가 그려진 그림을 든 아이들 사진을 소셜 미디어에 올리고 있다고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가 최근 보도했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페이스북에는 마음과 시골의 아이들이 ‘이리 와서 나를 구해주세요’라고 쓰여진 포켓몬 그림을 들고 있는 일련의 사진들이 공개됐다”고 전했다.

그림에는 “나는 이들리브시 카프르 나불에 있습니다. 와서 나를 구해주세요”라는 글이 적혀 있다. 이에 수 만명이 페이스북 사진을 공유했다. 이는 ‘시리아혁명군 미디어사무소’(RFS)가 세

계적인 포켓몬GO 열풍에 착안해 낸 아이디어다. 이 언론은 시리아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에 대한 시리아인들의 저항 메시지를 퍼뜨리고 있다.

RFS 한 터키 대변인은 “우리는 아사드 정권과 동맹국에 의해 죽거나 공격당하고 있는 시리아인들과 점령 지역의 시리아 아이들의 고통에 대해 관심을 환기시키고 싶다”고 했다.

이번 아이디어는 유니세프가 시리아 아동에 대한 폭력의 종식을 촉구한데서 나왔다. 유니세프 측은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들이 체포되거나 납치,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강혜진 기자

## “5만여 어린이 영양실조로 생명 위험”

나이지리아 보르노 주 어린이들…급성 영양실조 고통에 시달려

수니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보코하람의 근거지 나이지리아 보르노 주에서, 25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생명의 위협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최근 보도했다.

이 가운데 5분의 1은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보르노주에서 24만 4,000명의 아이들이 심각한 급성 영양실조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20%인 4만 8,000명은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고 한다.

유니세프는 “급성 영양실조로 생명이 위험한 아이들의 수는 최근 계속 증가해 2013년 3만 5,000명에서 2015년 5만 7,000명으로 늘었다. 2016년에는 이 수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보르노주를 방문하고 돌아온 유니세프 서부 및 중앙아프리카 지부 담당자 매뉴얼 폰테인(Manuel Fontaine)은 “긴급한 도움이 없을 경우, 매일 평균 134명의 아이들이 영양실조와 관련된 질병으로 죽을 수 있다”며 현장의 소식을 알렸다.

그는 “보르노주의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물품 구매나 건강보험 혜택에서 끊어져 있다. 많은 이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없다. 이는 어린 아이들의 건강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또 “나이지리아 전체 인구인 1억 8,000만 명 가운데 약 250만 명의 아



기독교인들에 대한 테러가 계속되고 있는 나이지리아 © 오픈도어선교회 제공

이들이 심각한 급성 영양실조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36개 주 중 12개 주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열악한 인프라와 안보의 위험 때문에 나이지리아 북부 200만여 명에게는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나이지리아 북부의 200만 명이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인해 피신한 가운데, 약 15,000명이 목숨을 잃었다. 보코하람은 여전히 나이지리아 북부를 비롯해 이웃 국가인 카메룬, 니제르, 차드 등지에서 자살폭탄 테러를 일삼고 있다.

지난 6월, 국경없는이사회는 보코하람을 피해 북동 지역으로 피신한 난민들이 머무는 캠프에서 1,200명 이상이 질병과 굶주림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강혜진 기자

## “영정부, 증오범죄대비 교회에 36억원 지원”

IS 공격으로 프랑스 신부 살해됐다는 소식 전해진 직후 발표

영국 정부가 교회를 비롯한 예배 장소에 보안 대책 기금 약 240만 파운드(약 36억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원을 비롯한 종교 건물이 ‘보호·보안 대책’ 용도로 쓰이는 이 기금의 혜택을 입게 됐다.

이 기금은 26일(이하 현지시각) 앰버 러드 내무장관이 발표한 증오범죄 대책 계획의 일환으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증오범죄를 막기 위해 사원, 회당, 교회 등 예배 장소에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미사를 드리던 한 프랑스 신부가 IS의 공격으로 살해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나왔다.

러드 장관은 증오범죄에 대한 경찰 측의 대책을 분석하는 일도 영국 경찰청(Her Majesty's Inspectorate of Constabulary, 이하 HMIC)에 요청할 계획이다.

영국 정부는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도 단속에 나섰다. 교사와 학생들에게 테러 사건 발생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과 ‘대화와 협상법’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통계에 따르면, 6월 중순부터 현재 까지 6천 건이 넘는 증오범죄가 경찰에 보고됐다. 이는 1년 전에 비해 20%가 상승한 수치다. 이 가운데 10%의 청년들이 종교 관련 증오범죄로, 8%가 인종 혐오범죄로 희생됐다.

러드 장관은 “증오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은 국적, 인종, 종교적인 이유로 타인을 공격하거나 학대해도 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퍼뜨리고 있다”면서 “이는 공공의 가치관을 무시하고 사회와 개인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편견을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 또한 그들에게 전달할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 모두를 위해 움직이는 21세기의 영국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증오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혜진 기자

## O.C./얼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562) 483-0191 / (714) 493-0191

조일영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주일 9:00AM 새벽예배 월~금 5:30AM  
주일예배 2부 주일 11:00AM 주일 11:00AM  
주일예배 주일 11:00AM NEXT한국학교 토 8:30AM  
대회전선교대회 주일 2:00PM NEXTkids club 주일 12:40AM-1:40PM  
제자훈련(사역훈련) 회 7:30PM

NEXT 사랑의교회  
NEXT Sa-Rang Church  
11 Musick Irvine, CA 92618 Tel (949)829-0010(office)  
www.nextsa-rang.com

주일예배 (1부) 10:00am 수요일예배도회 9:00pm  
(2부) 1:30pm 금요온전절야예배 8:00pm  
사복예배 (월~토) 5:00am - (마음날) 7:00am  
화요종중기도회 7:00pm 토요성경예배 7:00pm

안드류 김 담임목사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 714-600-7700 www.ubmchurch.com

김영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창년부 오전 9:30, 11:30  
한국창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성장을 다리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0: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도시체육예배 오전 6:00 설기축제 : 매월 4주째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T.(714) 806-2562 kpcadavid@yahoo.com

민경업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영어예배 오전 11:00 대학부 예배 오후 1:3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30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흘러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Puente)  
T.(562)691-0691 F.(562)691-0698 / nachimban.org

박재만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오후 6:00(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새벽 5:30(월~금)

안창훈 담임목사

4552 Lincoln Ave.#207, Cypress, CA 90630  
T. (714) 952-0191 / www.socalgc.com

하규암 담임목사

1부주일예배 오전 8:00 토요새벽 예배 오전 6:00 본당  
2부주일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공부 저녁 8:00 본당  
3부주일예배 오후 1:30

놀워연합감리교회  
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562)802-4959 C.(714)308-7308 / usa8291@gmail.com

한국예배 오전 9:00 새벽예배 오후 8:00

4552 Lincoln Ave.#207, Cypress, CA 90630  
T. (714) 952-0191 / www.socalgc.com

김일권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EM주일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다감사교회  
The Gamsa Community Church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714)988-3321, www.dagmachschurch.org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gmail.com

이서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2:20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 (점은이예배)

고현종 담임목사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

EM예배 오전 8:45 금요Alpha 오후 7:30  
2부예배 전 11:00 새벽기도회 5:30(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모전 6:00(토)  
EM예배 오후 9:3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 9901 / visioncc.org

김현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15 4부 청년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3부예배 오전 11:00 토 새벽 협사부 기도회 새벽 6:00

권혁빈 담임목사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P-kinder(Korean) 오전 11:00 Children(1-6) 오전 11:00  
금요일 기도모임 오후 8:00 Youth(7-12) 오전 11:00  
토요한글학교 퍼포스클리닉 오후 1:00  
College 오후 1:00

베델한인교회

17702 Cowan, Irvine, CA 92614  
T. (949) 250-1111 / www.beautifulchul.com

홍성준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10: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회청년부 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예배 오후 10:00

얼바인온누리교회  
믿음으로 하나님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 769-9628

박경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화~금)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부 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학급) 청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00  
FAME예배 오후 11:30(청년 영어)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 • 정연호 칼럼

## 유대인과 반(反)유대주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2)

## ◆ 모든 유럽인은 기독교인으로 태어나고 죽었다

주후 4세기 이후 유럽 사회는 기독교 사회로 변모되기 시작한다. 유럽인들은 기독교인으로 태어나고 기독교인으로 죽어갔다. 교회의 설교와 가르침, 기독교의 모든 가치관이 이들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된 것이다. 과거 유럽교회 평신도에게는 중요한 신학적 주제를 의식적으로 골몰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여건이 주어지지 않았다. 특히 중세교회 교인들은 무식하였다. 글을 읽을 줄 몰랐기에 그림(성화)으로 기독교의 진리를 배울 수밖에 없었을 정도로! 그러기에 교회와 신학자들에게 배우고 전수받은 사상이나 가치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며 그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할 뿐이었다.

더욱이 중세 시대, 교회의 가르침이 거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던 상황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교회의 신부, 신학자, 목사의 가르침과 사상은, 그대로 평신도에게 전수되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었던 것이다. 유럽의 문화와 사상은 철저히 교회 문화로 사상이었으며, 이는 서구인들의 가치 판단과 행동에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교회의 주도권이 팔레스타인 땅의 유대인 교회에서 헬라 세계의 이방 교회로 넘어가게 된 주후 2세기 중엽 이후, 특히 4세기의 교부 시대 이후로 교회의 반유대적인 입장이 시작된다. 적어도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이런 가르침은 17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다. 그러면 교회가 가르친 반유대적인 내용이란 도대체 어떤 것들인가.

## ◆ 죽음에 이르는 신학 전쟁: 대체신학

2세기 중엽까지 기독교는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이 미약했다. 특히 예배와 제의적 측면에서 그러했다. 그리하여 기독교의 자기 정체성 확립을 위한 일차적 과제는 기독교의 유대적 뿌리를 완전 단절시키는 것이었다. 이런 작업은 2차 유대인 반란(132~135년) 이후 유대인에 대한 로마의 핍박과 더불어 본격화된다. 로마제국의 이방 크리스천들 중에는 교회에 다니면서 주변 유대인들의 절기와 예전(rituals) 등을 선호하여 좋았다는 소위 유대주의자(Judaizer)들도 있었다. 이들로 인해 크리스천들 역시 유대인으로 오인되어 핍박을 받게 되자, 교회는 유대교와의 단절을 서두르게 된다.

이러한 단절 작업의 일환으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고 보는 대체신학(supersessionism)이 등장한다. 유대교는 기독교에 의해,

해,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선민의 자리는 기독교인들에 의해 대체되었다는 주장이다. 교회는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복 또한 유대 백성으로부터 기독교인들에게로 옮겨졌다는 것이다. 주후 70년 유대 왕국이 멸망하고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었으며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다는 사실이 이러한 신학을 역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 ◆ 교부들의 반(反)유대주의 (1): 유대교의 재해석

교부들은 유대교를 신학적으로 암도하기 위해 유대교를 열등하고 악한 종교이자 기독교에 대한 모욕 이자 위협으로 묘사하여, 크리스천들을 새롭고 진정한 선민의 자리에 옮리고자 했다. 제롬은 어거스틴에게 쓴 편지에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유대교의 관습을 지키는 것이 허용된다면, 그들은 크리스천이 되지 않고 도리어 우리를 유대인으로 만들려고 할 것이며, ... (중략)... 그래서 유대인들의 의식들이 유해하며 누구든지 유대인들의 의식을 지키면 마귀의 함정에 빠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율법(토라)의 마침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교부들은 유대인됨(Jewishness)의 본질적 가치들과 의식들-예컨대 한 분이신 하나님의 언약, 선택받음, 할례, 윤리적 율법, 메시야, 음식 규정, 사방, 성일, 조상들, 그리고 거룩한 경전들-과 같은 것들을 재해석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우리가 너희의 하나님과 성경과 메시야와 또 율법 일부를 취했다. 너희들은 이제 유산을 이어받지 못하고, 또 지옥의 변방에 던져졌으며, 너희가 살아남은 것은 단지 완고한 악함의 결과가 무엇인지 를 경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이다.”

유대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아니라 신(그리스도)을 죽인 자로 전락했으며, 이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다고 하였다. 어거스틴에 따르면, 신을 죽인 죄 때문에 유대인들은 계속 역사를 통해서 고통을 받고 살아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주후 100년경에 기록된 바나바(Barnabas)서신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직후에 유대인들은 이 언약에서 실패했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의 자리를 대체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유대인들이 유통에서 떠났기 때문에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던졌다. “그들의 언약이 산산조각 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도장이 우리들의 마음에 찍히게 되었다.”

유대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아니라 신(그리스도)을 죽인 자로 전락했으며, 이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다고 하였다. 어거스틴에 따르면, 신을 죽인 죄 때문에 유대인들은 계속 역사를 통해서 고통을 받고 살아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주후 100년경에 기록된 바나바(Barnabas)서신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직후에 유대인들은 이 언약에서 실패했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의 자리를 대체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유대인들이 유통에서 떠났기 때문에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던졌다. “그들의 언약이 산산조각 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도장이 우리들의 마음에 찍히게 되었다.”



정연호 교수  
홀리랜드대학 구약학(유대학)

교부들은 할례는 더 이상 유대인과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지 못하고, 유대인이 마귀나 가인을 나타내는 것으로 주장했다. 저스틴 마터(Justin Martyr)는 그의 책 『트리포와의 대화』(Dialogue with Trypho)에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할례는 당신(유대인)이 우리에게서 구별되었다는 표시로 주어진 것이었다. 그리고 당신이 훌륭한 고통을 받는다는 의미이며, 당신(유대인)의 땅이 황량하게 되고 당신의 도성이 불타게 되는 하나님의 표식으로 주어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당신(유대인)에게 합당하게 일어났다.”

유대인들은 4세기의 신학자인 시리아의 에프라임(Ephraem)은 ‘할례 받은 개’라고, 존 크리소스톱은 ‘할례 받은 짐승’이라고 불렀다. 터툴리안(Tertullian)은 “할례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 주신 것으로서, 그들이 결코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갈 수 없도록 의도하셨다”고 주장했다. 히브리성경(구약성경)과 탈무드에는 윤리적인 법이 가득하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윤리적 원칙을 무시하고 선지자들을 죽이는 자들’로 매도되었고, 교부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의 피를 자신들과 자기 자손들의 머리에 돌리라고 외친 점에만 주목하였다.

## ◆ 교부들의 반(反)유대주의 (2): 유통은 악하다

교부들의 헬라의 이분법적 사고 체계는, 기독교를 우월한 종교로 유대교를 열등한 종교로 대비시키는 것이었다. 유대교는 바리새적이고 형식적인 유통주의 종교인 반면에,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란 것이다. 유대교의 모든 유통과 절기와 관습은 악한 것이며,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유통의 완성”(마 5:17)이나 바울이 말하는 “유통의 목적”(롬 10:4의 ‘teles nomou’)를 우리말 성경은 ‘유통의 마침’으로 번역했으나, 전체 문맥상 ‘유통의 목적’으로 번역함이 옳다)을 곧 “유통의 폐지”로 해석하였다. 이는 악한 유대교의 유통이 그리스도에 의해 완성되었고 그래서 폐지되었다는, ‘유통/은혜’라는 이분법적 사고

의 결과로 나온 해석이다.

이런 관점의 전형적인 모습이 4세기의 알렉산드리아의 시릴(Cyril)에게서 보이고 있다. 그는 바울이 ‘모세와 유통’을 ‘죽음’으로,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주석하였다. 그에 따르면, 벌 3:8에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해(害)’와 ‘배설물’로 여긴 것이 다른 아님 “유통”이라는 것이다. 그는 바울이 유대인과 유대교를 반대하는 것은, 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계시록에서 유대적 관습을 죄는 유대인들을 ‘사단의 회’(계 2:9, 3:9)라고 보는 것과 같은 입장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바울에 대한 시릴의 이 같은 해석은 대부분의 교부들과 후대의 신학자들에게 반유대적 신학의 정당성을 제공했다. 이런 것들이 바로 2천 년 동안 서구 교회가 유대인들을 박해하게 된 신학적 출발점이다. “유통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따른) 기독교의 반대는, 유대의 토리를 암시하고 유대인의 종교적인 삶을 하나님에 대해 적대적이고 마귀적인 것으로 만들었다”는 데 이비드 플루서(David Flusser)의 지적처럼, 토라(율법)에 대한 교부들의 반유대주의적 해석은 유대인에 대한 인종차별주의, 즉 ‘안티세미티즘’(Anti-Semitism)으로 이어지는 주요한 뿌리가 된 것이다.

## ◆ 회당을 무엇이라 부를 것인가

“만일 당신이 회당을 묘사하고자 할 때, ‘매춘의 집’ 혹은 ‘악의 소굴’ ‘악마의 피난처’ ‘사탄의 요새’ ‘영혼을 빼앗는 장소’ ‘재앙의 무저개’ 혹은 무엇이라고 부르든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것이다.”

성경을 라틴어(불가타)로 번역했던 성 제롬(347~420년)의 말이다. 성인으로 추앙받는 교부조차 유대인의 회당에 대해 이와 같이 저급한 가치관을 갖고 있었다면, 평신도는 두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 ◆ 회당에 대한 공격

회당이 ‘악마의 소굴’이라면 마땅히 파괴되어야 할 터. 교회의 자식들이 평신도가 회당을 공격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기독교가 4세기에 로마 제국을 암도하게 되면서, 회당에 대한 공격이 극적으로 증가한다. 그 결과 유대인에 대한 집단적인 강제 개종이나 추방, 혹은 살해가 뒤따랐다. 383~388년 로마에서, 388년 칼리니쿰(Callinicum)에서, 411~412년 에데사(Edessa)에서, 414년 알렉산드리아에서, 418년 미노르카섬의 마고나(Magona)에서, 그리고 419~422년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그리고 트렌스-요르단에서, 유대인 회당에 대한 공격으로 유대인들이 죽었다.

## ◆ 칼리니쿰 회당의 공격과 암브로스의 편지

이상의 회당 파괴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388년 칼리니쿰에서의 사건일 것이다. 지중해에서 약 200마일 떨어진 유프라테스 강가에 위치한 칼리니쿰에 있는 회당이, 지역 주교의 설교에 자극을 받은 기독교인들에 의해 불타고 교회로 바뀐 것이다. 로마의 행정관은 방화한 자들을 처벌하고 주교에게 회당을 재건할 것을 명령하였고, 이런 명령은 로마의 황제 데오도시우스 1세에 의해서 확인되었다. 데오도시우스 1세는 유대인들이 손상을 입은 것에 대해 보상을 거부할 법적 권리가 없었다. 왜냐하면 유대교는 그때까지 로마 제국에서 법적으로 인정받는 종교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밀란의 영향력 있는 주교였던 암브로스(339~397년)가 황제에게 주동자들을 용호하면서, 자신도 회당을 불태우고 싶던 바라고 썼다.

## ◆ 암브로스는 왜 회당을 불태우고 싶어했나

그도 또한 회당과 유대인들을 독사와 마귀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암브로스는 유대인과의 접촉 자체가 오염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누가복음 4장에 대한 그의 주석에 나타나 있다. 누가복음 4장에 의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을 나사렛 회당에서 처음으로 분명하게 드러내고 하나님나라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회중이 예수를 거부하고 그를 죽이려고 한 일에 대해서 암브로스는 다음과 같이 주석하고 있다: “회당의 유대인들은 마귀의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아닌가 -뱀에게 꽁꽁 걸박되고 마귀의 몇에 사로잡힌 것처럼- 위선적인 육체적인 정결을 그 영혼의 내적인 것으로 오염시킨 자들이 아닌가?”

이와 같은 암브로스의 해석은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의 『누가복음 주석』(Expositio in Lucam)에서 인용되고 있다. 칼리니쿰 회당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하는 암브로스의 주장은, 하나님께서 이미 유대교와 유대 공동체의 상징인 회당을 파괴하기로 하셨다는 것이다. 암브로스는 기독교인들이 회당을 파괴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인되는 곳이 없게 될 것이다”라고 썼다. 왜냐하면 “회당은 불신의 장소이고, 또 불경건의 집이며, 정신이상자의 피난처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곳이기 때문이다.” <계속>

##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최저 1C  
1장

복사기판매!  
렌탈!서비스!

##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 복사기 무료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칼라  
카피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www.fbmcoipers.com](http://www.fbmcoip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 복새통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잠언 8: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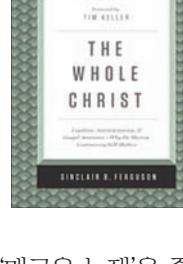


## 신간 추천

### THE Whole Christ

Ferguson, Sinclair B. | Crossay Books | 256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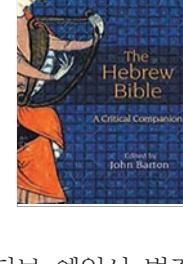
오늘날에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여전히 어렵다. 싱클레어 퍼거슨의 신작으로, 18세기 초 스코틀랜드에서 벌어졌던 율법 폐지론을 주제로 한 '매로우 논쟁'을 중심으로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명쾌하게 정리한다. 당대의 논쟁을 역사적으로 분석한 후, 유행주의와 유행폐지론 사이에서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책.



### The Hebrew Bible

Barton, John | Princeton Univ. Pre | 632p

존 바顿(John Barton)의 지휘 아래 총 4부로 구성되어 23명의 저자들이 각 주제를 맡아 쓴 히브리 성경 비평서. 1부는 고대 근동 사회에서의 이스라엘에 대해, 2부는 내리티브, 예언서, 법조문, 지혜문학, 시 및 운문을 분석, 3부는 유일신론, 창조, 인간, 언약, 윤리, 종교적 의미의 공간과 구조, 종교의식들을. 4부는 '구약'으로 역사-비평, 문학적 접근, 신학적 접근 등을 다루고 있다.



### The Latin New Testament

Houghton, HAGI Oxford Univ. UK | 400쪽

본서는 라틴어 신약 성경의 역사와 발전에 대한 입문서로, 초기 교회 시기부터 중세 후기에 이르기까지 라틴어 신약 성경이 어떻게 기독교 신학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도 밝혀준다. 총 3부로 구성돼 있다. 1부는 지리와 시간을 중심으로 사본들과 번역자들과 신학자들을 다루고, 2부는 텍스트들의 편집과 자료들을, 3부는 구성된 사본들을 다룬다.



### Historical and Biblical Israel

Kratz, Reinhard G. | Oxford Univ. UK | 288p

이스라엘의 역사 는 성경 속에 기록된 '성역사(Historia sacra)'와 실제 역사가 있지만, 그 둘은 다르며 일치시킬 수 없다는 전제 아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전승들에 대해 조사한 책. 1부는 이스라엘의 분열 과정 역사에 대해, 2부는 각 분열된 상태의 서기관 전통 및 토라, 느비임, 케투빔 그리고 외경과 위경들의 전승사를 조사, 3부에서는 이러한 전승에 대해 역사성을 분석한다.



## REVIEW

### 구입문의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LA : 기독교서적센타 T. (800)669-0451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 "세상을 거스르는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다"

십자가가 지닌 반전의 의미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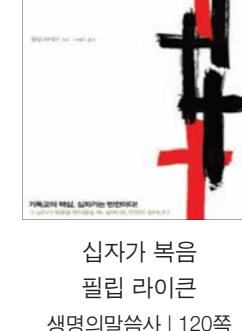
제10장로교회의 담임이자 휘튼 대학의 총장인 필립 라이크은 이 책을 통해 십자가가 단순한 종교적 상징물이 아니라는 사실과 함께 십자가에 담긴 반전의 의미를 전하고 있다.

이 책은 필립 라이크이 제10장로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제임스 보이스 목사와 함께, 교회의 전통을 되살려 사순절 기간 금요 정오 예배 때 전한 복음 설교를 정리한 것이다. 당시 필라델피아에 거주하거나 일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예배인 만큼 일반 성도에게 십자가의 핵심 의미와 그 안에 담긴 복음을 간결하고 쉽게 설명하고 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는 반길 만한 소식이 아니었다. 성경은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할 십자가의 참된 의미 역시 세상이 이해하는 의미와 전혀 다르다고 말한다.

이 책은 일곱 가지 성경구절을 하나씩 살펴보며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당시 십자가의 의미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반전된 십자가의 의미,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올바르게 알고 적용해야 할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한다.

세상이 보기기에 수치스럽고 극악하고 잔인한 사형틀인 십자가가 그



십자가 복음  
필립 라이크  
생명의 말씀사 | 120쪽

리스도인에게는 어떻게 영광스러운 복음이라는 놀라운 반전을 전달하는지를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전하고 있다.

이제 막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사람부터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신자까지 모든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할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다. 우리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이 보기기에 모욕이고 하찮고 연약하고 불품없는 그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전1:18).

이 책은 십자가에 대한 무겁고 어려운 신학적 진술이 아닌 말씀을 통한 쉬운 이해와 적용을 알기 원하는 성도나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고픈 새신자와 비그리스도인

에게 추천한다.

저자 필립 라이크은 휘튼 대학과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필라델피아 제10장로교회 담임이었던 제임스 보이스의 후임이자 현재 휘튼 대학의 총장으로, 제임스 보이스와 함께 기독교 핵심 진리를 전하는 말을 선포했다.

휘튼 대학의 영문학 교수이자 기독교와 문학 관계 분야에서 많은 책을 출간한 리랜드 라이크의 아들로, 개혁주의의 핵심 진리를 풍성한 문학적 감수성을 담아 잘 전달하고 있다.

이영인 기자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http://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가주 삼성 통운(주)

###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 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이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씨애틀, 달라스, 애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 해외이사

- 하와이, 일본, 알리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困惑 1-877-580-2424 샘우스 (310)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북스리뷰]

# “혼자서도 쉽게 읽고 이해…지금은 성경2.0시대”

## 시간 순서 배열, 구약 인물 특징 살린 캐리커처 등 9년간의 대장정

성경 통독 프로그램이나 성경을 쉽게 풀어 주는 각종 ‘참고서’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은, 결국 성경 읽기가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의미일 것이다. 성경은 66권이 다양한 장르와 내용으로 구성돼 있기에 차례대로 읽기도, 전체의 맥을 잡으면서 읽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기독교는 ‘책의 종교’이기에, 성경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는 쉽지 않다.

배경지식이 전무한 새 신자들에게는 이러한 고충과 딜레마가 더욱 심할 수밖에 없다. 만화 <성경 2.0> 시리즈를 기획한 씨엠 크리에이티브(CM creative) 이길우 대표도 그랬다.

마흔이 돼서야 회심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이 대표는, 성경 읽기에 도전했지만 번번이 쉽지 않았다. 초신자들을 위한 ‘쉬운성경’으로 1독을 했지만, 머리에 남는 것이 별로 없었다고 한다.

학습만화 기획사 ‘하이툰닷컴’을 운영하며 유명한 ‘와이(WHY)’를 비롯해 ‘둘리 팀很差’, ‘서울대 인문고전’ 시리즈 등의 작업에 관여했던 이 대표는, 결국 성경 내용을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작업에 직접 나서기로 결심했다. 특히 21세기 시대상에 맞게 텍스트와 이미지를 통해 쉽게 각인시킬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성경 2.0> 시리즈다. 현재 구야이 전 7권으로 출간됐고, 신약이 작업 중이다. “텍스트 위주의, 누군가 성경을 대중에게 잘 설명해 주는 방식이 1.0이었다면, ‘성경 2.0’은 그림과 글을 통해 혼자서도 쉽게 이해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학습만화 제작 경험은 많았지만, 초신자이다 보니 성경 전체 내용을 만화로 옮기는 작업은 결코 만만치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것이기에 허투루 할 수도 없었다. 결국 책은 예정보다 3년이나 늦은 2013년에야 출간이 시작됐고, 9년 간의 대장정 끝에 지난해 구약 전 7권이 완간됐다.

스토리 작업은 때맞춰 입사한 ‘목회자 자녀’ 김동순 작가가 맡게 됐다. 평소 ‘제대로 된 성경 만화’를 만들고 싶다는 비전을 갖고 있던 김 작가는 이 대표와 의기투합했다. 그림의 퀄리티도 상당해, 시리즈는 오랜 기독교 역사를 지닌 서양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한다. 애초 만화의 선진국이라는 미국과 영국, 일본 등 해외 시장을 염두에 두고 시작한 작업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학습만화는 우리나라가 최고 수준에 있는 데다, 국내에서 20여 년간 학습만화만을 만들어온 이 대표의 경험도 한몫을 했다. 그래서 남다른 그림 수준 때문에 번역서가 아닌가 오해하는 독자들도 간혹 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순수 국내 실력”이라고 전한다.

그림 하나하나에도 철저한 고증을 거쳤고, 대사와 설명 등에 있어 성경 본문을 그대로 기록해 이해도를 높였다. 복잡한 내용들은 많은 그림이나 도표, 지도로 친절하게 설명했으며, 연관된 사건들은 ‘Link’를 통해 앞뒤 시리즈에서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들도 지루하지 않도록 재미있는 상황 설정과 대사들을 가미했다.



Congregants of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gathered for a vision meeting regarding the multisite on July 24.

##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to Launch Multisite Campus

BY RACHAEL LEE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currently located in Artesia, CA, will be launching a multisite campus in Placentia, CA this fall.

The church plans to have the Placentia services at Valencia High School, and is currently awaiting the contract with the school to be signed and finalized. The Sunday services at Placentia will take place some time between 9 and 9:30 AM, the church said. Children's ministry services for children aged 0 to approximately 10 years old (6th grade) will also be offered during the same time, while the church leaders hope to start youth ministry in the beginning of 2017. Harold Kim, the head pastor of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CCSC), will be preaching at the Placentia site as well as the Artesia site, the latter which will continue to hold services at 11 AM and 12:30 PM.

Kim said that he had hoped that CCSC would "be a reproducing church" since the beginning of his time as a pastor at the church. That hope began to materialize about two years ago when the church formed the first of several committees that would form to actual-

ize the vision to be a reproducing church, called the 'Offsite Exploratory Committee' (OEC), comprising of lay leaders in the church.

For about a year and a half, the OEC considered whether there was a need for another church site, and how another church site should be launched if they did find that it was needed. Ultimately, the OEC — which later became the 'Multisite Executive Team' (MET) — decided to launch the multisite.

"In considering how Christ Central could best reach new communities, the OEC carefully evaluated many alternative approaches, engaging leaders at the church through informal surveys on what drew them to Christ Central," the church explained in a Q&A page regarding the multisite on its website. "Overwhelmingly, key stakeholders mentioned the gospel-centered teachings of the pastoral staff led by Pastor Harold. With this in mind, a commissioned church plant with an unknown teaching pastor did not seem like the right approach at this time. A replication of Christ Central with the current pastoral staff seemed to be the most prudent approach for the church's current life stage."

Since then, the church has also

formed the 'Multisite Steering Committee' (MSC), comprising of representatives from the session, church staff, diaconal board, the MET, and other groups within the church, and for a two-month period, Kim and members from the MSC visited small groups of the church congregation "to communicate, educate, and be transparent about the multisite process," said David Song, the co-chair of the MSC.

CCSC also hosted a vision meeting regarding the multisite on Sunday, during which Kim shared his vision, and congregants were able to ask questions.

Ultimately, the purpose of launching the multisite is for evangelism, said Kim during the meeting.

"We found that church planting, or having a multisite, are among the best ways to reach more people for Christ," he explained.

"Christian life has a mission while we're still here on earth," Kim added. "This is the point of CCSC. This is the point of my life, of your life."

The church plans to have two soft launch services in October (October 9 and 23), and the official launch date is set for October 30.

## New Life Vision Church Breaks Ground for New Sanctuary

BY JUNHYEONG KIM  
TRANSLATED BY RACHAEL LEE

New Life Vision Church held a groundbreaking ceremony for its new church site on July 23. The new building will be built behind the Costco which is located at the intersection of Los Feliz Boulevard and San Fernando Road, where New Hope Chapel was once located (4226 E. Verdant St., Los Angeles, CA 90039).

The church stated that out of the two new buildings that will be built, a multi-purpose building which will contain the education department will be constructed first.

This multi-purpose building will be some 48,000 square feet large, with a small sanctuary, classrooms, a gym, a cafeteria, and an intercessory prayer room,

among other things. The second building that will be constructed afterwards will be some 37,000 square feet large, and the main sanctuary will have a 1,130-seat capacity. This building will also contain a book cafe, church offices, and other rooms. The parking lot will fit about 1,100 cars at once.

"I hope that this will be a place where many souls are saved, where children grow in the Word of God, and that it becomes a channel of blessing to Los Angeles and the community," said Rev. Joshua Choon-Min Kang, the senior pastor of New Life Vision Church.

554 church members have been participating in a 24-hour intercessory prayer relay since June 6, and will continue until the completion of the buildings.



New Life Vision Church hosted a groundbreaking ceremony on July 23 for its new church sanctuary.

## LA DMH to Host Forum on Mental Health for Koreans

BY RACHAEL LEE

An open forum on the benefits that Korean Americans can receive from the Los Angeles County Department of Mental Health will be taking place on Thursday (July 28) at Mijoo Peace Church.

"The district chief himself will be attending the seminar to explain the various services and benefits available, and to have a discussion on the difficulties and needs of the Korean community," explained Young Ahn of the LA DMH Service Area 4 Emergency Outreach Bureau.

Edward Vidaurri, the current Los Angeles County Department of Mental Health District Chief, will be retiring the day after the open forum.

The forum, which will take place from 10 AM to 12 PM, will also discuss prevention and intervention of mental health issues, and is hosted by the Los Angeles County Department of Mental Health. Two Korean representatives from the LA DMH will also be speaking at the forum.

Though Vidaurri will be speaking in English, translations in Korean will also be offered.

## KFAM Secures Donation to Continue Offering Free Counseling Services

BY RACHAEL LEE

Korean families struggling with domestic violence, mental illness, and other difficulties will be able to receive free counseling with Korean American Family Services (KFAM) once again this year.

The non-profit began a free counseling service from a fund called the 'R.O.C.K.' (Resilience to Overcome Challenges for Korean families) fund in 2015 when it received a \$50,000 donation from an anonymous benefactor who wanted to help Korean families who are undocumented or are not

financially able to afford counseling to be able to receive the help that they need. 77 Korean individuals were able to receive free counseling through the R.O.C.K. fund in 2015, which made up some 33 percent of all families that received counseling through KFAM that year. The non-profit once again secured a \$50,000 donation for 2016, allowing KFAM to continue the R.O.C.K. services.

"Many of those who once struggled with depression, anxiety, various trauma, and other difficulties and received free counseling through the R.O.C.K. fund say that

they now live happier lives as they go out and meet with friends," said KFAM executive director Connie Chung Joe. "We are thankful to the benefactor who gave such a large donation to help form healthy Korean families, and we hope that those who were hurt and are hurting would be able to recover through the counseling services that KFAM offers."

Meanwhile, KFAM offers various services for Korean immigrant families, such as mental health workshops, and placing Korean children in the foster care system with Korean families, among others.

## Atlanta Korean American Students Give Back to the Community

BY ANDERSON KIM  
TRANSLATED BY RACHAEL LEE

During summer vacation, teens can be found being involved in various activities and living out different experiences. Among those, there are some who decided to spend their vacation meaningfully by serving the community.

Five Korean American students from Walton High School, Lambert High School, North Gwinnett High School, and Taylor Road Middle School met and became friends through their parents, who

attend the same church. Since spring, they brainstormed together on how they could spend their summer vacations to serve the community.

They decided to gather together the things they no longer use and sell them. Starting June 11, they began selling their items at a booth in a flea market.

The money that they earned through the sales became a donation fund that they gave to be used in the Asian American Resource Center's program that supports homeless families. One of the stu-

dents been involved in the Asian American Resource Center's community service efforts each summer. The students visited the non-profit's office on July 21 to give the donation.

"This experience of helping others and getting involved in the community from a young age will help these students to grow as citizens, and this special donation that the students have gathered will be a significant help, beyond the simple numbers," said Connie Jee, the executive director of the Asian American Resource Center.



The students visited the Asian American Resource Center to give the donation on July 21.

### Local Churches and Ministries

#### Christianity Daily

A ministry through journalism

For questions about advertising and donations

T.(213)739-0403 F.(213)402-5136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1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http://www.ocbethel.com)

Bethel English Church



Sunday Services: 9:30 AM & 11:30 AM  
Sunday School: 11:30 AM  
College Group Meetings: Fridays at 6 PM

PASTOR SUNG CHA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www.charis.church](http://www.charis.church)



Sunday Services: 11 AM & 12:30 PM

PASTOR HAROLD KIM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http://www.christcentralsc.com)



## LGBT History to Be Taught in California's Public Schools

*Inclusion of LGBT-related topics in history, social science lessons will begin as early as second grade*

BY CHRISTINE KIM

The California State Board of Education unanimously approved the implementation of a law that will require the state's public schools to include LGBT history in their curriculums for social science and history classes.

On July 14, a new History-Social Science Framework for California Public Schools was adopted by the board which will include lessons covering key historical figures of the LGBT movement, different family structures, gender roles, as well as the 2015 Supreme Court ruling that legalized same-sex marriage across all 50 states. Inclusion of these topics will start as early as second grade and will take effect immediately.

Peter Tira, an information officer for the state's Department of Education,

says that the goal is to have the updated curriculum in place by the 2016-2017 school year and updated textbooks by 2017, CNSNews reports.

Randy Thomasson, president of SaveCalifornia.com, helped lead opposition to the bill and has spoken out against its passage.

"SB 48 has no parental opt-out. The only way parents can opt-out their kids from this immoral indoctrination is to opt them out the entire public school system, which is no longer for morally-sensitive parents and their children," Thomasson said in a statement.

"This is a priority when fewer than 3 out of 10 kids in California public schools are taught to read proficiently," he asked.

In 2011, Gov. Jerry Brown signed the Fair, Accurate, Inclusive and Respectful

(FAIR) Education Act, which mandated the inclusion of LGBT history in the context of the history of California and the United States.

Though the bill took effect in January 2012, the implementation of the bill was stalled by opposition and failed attempts to repeal the law, along with budget cuts.

The law also includes an update to California's current education code to also cover "...a study of the role and contributions of both men and women, Native Americans, African Americans, Mexican Americans, Asian Americans, Pacific Islanders, European Americans,...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members of other ethnic and cultural groups, to the economic, political, and social development of Californi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Most Americans Favor Abortion Regulations to Protect Women's Health, According to Poll

A new survey shows that about 78 percent of all Americans are in favor of regulating abortion clinics to have the same safety standards as outpatient surgical centers. Half of Americans (51 percent) were pro-choice, and as many as 74 percent of pro-choice Americans were in favor of those safety standards.

The Marist poll, commissioned by Knights of Columbus, was conducted on 1,009 adults between July 5 and 12.

About 82 percent of Latinos, 77 percent of African Americans, 84 percent of millennials, and 77 percent of women, irrespective of party affiliations, supported higher standards in abortion clinics.

Also, 70 percent of Americans believe that doctors who perform abor-

tions should have admitting privileges to nearby hospitals. Some 77 percent of millennials, 71 percent of women, and 71 percent of pro-lifers as well as pro-choicers had the same opinion.

Some 62 percent of Americans opposed taxpayer funding for abortion. About 65 percent of African Americans, 61 percent of Latinos, and 45 percent of pro-choice people agreed that funding abortions through taxpayer money was not conscientious. About 84 percent of Republicans, 61 percent of Independents, and 44 percent of Democrats were against taxpayer-funded abortions.

A substantial majority (56 percent) said that doctors should not be forced to perform abortions against their religious beliefs and conscience. About

41 percent of those who were pro-choice also believed that.

"The American people have spoken clearly on their desire for abortion restrictions, less taxpayer funding of it, and common sense regulations on this industry to protect women's health," said Supreme Knight Carl Anderson. "Our courts, politicians, candidates and parties should heed this consensus."

"The majority of Americans in favor of abortion restrictions has been consistently around 8 in 10 for the better part of a decade," said Barbara Carvalho, director of the Marist Poll. "Though self-identification as pro-life or pro-choice can vary substantially from year to year, the support for restrictions is quite stable."

## As Tens of Thousands Flee Homes in Sudan, Churches Join Hands to Offer Aid

BY RACHAEL LEE

Church leaders of the Anglican and Episcopal churches have been providing shelter and material assistance for people in South Sudan as tens of thousands have been internally displaced or fleeing the country due to the violence that has persisted in the country.

Though the civil war in South Sudan was supposed to have ended in April, spurts of violence have continued as conflicts between the factions supporting the president, Salva Kiir, and the vice president, Riek Machar, have continued to erupt.

According to the most recent United Nations report released on Friday, over 26,000 South Sudanese people have fled the country into Uganda since July 7, and over 8,300 flooded into Uganda on Friday alone, which the agency says is the highest record of people in 2016 that have fled the country in a single day. Andreas Needham, a spokesperson for the Office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said that 90 percent of those refugees are women and children.

The relief efforts by the church leaders have been organized by the Anglican Alliance, the Episcopal Church of South Sudan and Sudan (ECS), and



Refugees in Jamam camp in South Sudan stand in line for water. Pictured in April of 2012. (Photo: Robert Stansfield/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CC)

the ECS relief agency called the Sudanese Development and Relief Agency (Sudra).

The ECS said in a conference call, according to an Anglican Communion News Service report, that many of those who were displaced have been seeking shelter and help from local churches.

By the request of Sudra, the Episcopal Church in the U.S. said they would provide help for 200 families looking for shelter, according to the report. Sudra also requested help to provide food for 14,400 internally displaced people.

"It is -- as so often -- the poorest and most vulnerable who bear the brunt of

the violence, who have lost lives, loved ones, and homes," said Dr. Rowan Williams, the former Archbishop of Canterbury, regarding the situation in South Sudan. "The recent hostilities have demonstrated the fragility of the peace agreement."

"The violence in South Sudan and the subsequent insecurity in the region has forced several international agencies to evacuate their personnel from the country," Rachel Carnegie, co-executive director of the Anglican Alliance, told Anglican Communion News Service. "The Church, locally based, stands in the breach, protecting the most vulnerable."

## China to Close Churches for One Week, Citing Safety Concerns for G20 Summit

China has ordered churches in and around Hangzhou city in the eastern Zhejiang province to close during the G20 summit in order to "create a safe environment" for world leaders when they attend the conference, according to reports. The G20 meeting is scheduled for September 4 to 5, but Hangzhou will observe a public holiday until four days after the summit.

All large-scale prayers and other religious activities will not be permitted in Xiaoshan district in south-east Hangzhou during those six days, to reduce heavy traffic and congestion in the city. Also, all religious places in the bordering city of Jinhua are forbidden to hold any activities between July 1 and Septem-

ber 9. House churches have been shut down before the summit, a Hangzhou pastor told the Global Times.

"During their preparations for the G20 summit, all houses and offices are required to register with the government and report how many people are living in the residence and for what purpose," a pastor told Global Times on the condition of anonymity.

The city's underground churches have also been told to not assemble.

"I cannot understand why they have done this... Worshiping God has nothing to do with the G20 summit," Li Guisheng, a Christian human rights lawyer, told The Guardian.

Zhejiang province has the high-

est concentration of Christians in the country, and Wenzhou city in the province is also called the "Jerusalem of the East."

Recently, reports said the local government in Zhejiang province adopted a new law which made it mandatory for some churches to hand over their income and donations to the authorities.

The government crackdown on churches in China in the recent years have led to demolition of about 1,700 churches and over 2,000 crosses since 2014 under the "beautification" campaign known as "Three Rectifications and One Demolition," which the authorities say is directed against "illegal construction" in Zhejiang.

Sunday Services: 9 AM & 11:15 AM  
Children's Ministry: 9 AM & 11:15 AM  
Youth Group Service: Sundays at 11:15 AM

PASTOR KEITH PARK



Church of Southland  
1380 S. Sanderson Ave, Anaheim, CA 92806  
T. (714) 209-7349 / churchofsouthland.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Brea Campus Service Times: 9:30 AM, 11:30 AM  
PASTOR STEVE CHOI  
Irvine Campus Service Time: 10:30 AM

Crossway Community Church  
Brea: 695 Madison Way, Brea, CA 92821  
Irvine: 100 Honors, Irvine, CA 92620  
T. (714) 529-5551 / crossway-church.com

PASTOR TIM PARK



Sunday Services: 9 AM & 10:45 AM  
Children's Ministry Services: 9 AM & 10:45 AM  
Youth Services: Sundays at 9 AM, Wednesdays at 6:30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0:45 AM

Evangelical Free Church Diamond Bar  
3255 S. Diamond Bar Blvd, Diamond Bar, CA 91765  
T. (909) 594-7604 / www.efreedb.org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PASTOR RONNIE PARK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org

PASTOR SAM KOH



Sunday Services: 9 AM & 11 AM  
Bible Studies: Wednesdays at 7 PM  
Prayer Meetings: Tuesdays at 11 AM, Saturdays at 9 AM

Hillside Church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909-9062 / www.hillsidela.org

PASTOR PHIL KIM



Sunday Services: 9:45 AM  
The Home Church  
19271 Colima Rd, Suite A/B,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384-1393 / thehomechurchrowland.com

PASTOR HENRY LEE



Sunday Services: 11:30 AM  
Crossroads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www.crlafgc.com

Sunday Services: 9 AM & 11 AM  
College Group Meetings:  
Sundays at 12:30 PM, Fridays at 8 PM

PASTOR STEVE CHANG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oad, Brea, CA 92821  
T. (562) 694-2100 / www.livinghopecc.org

PASTOR KIWON SUH



Sunday Services: 10: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0:30 AM, 12:15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2:15 PM

New Life Vision Church  
4077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323) 373-0110 / www.nlvc.org

PASTOR PAUL KIM



Sunday Services:  
8:30 AM, 9:45 AM & 11:15 AM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1831 South El Camino Real Encinitas, CA 92024  
T. (760) 753-2535 / www.redeemersd.org

PASTOR DANIEL HAN



Sunday Services: 1 PM  
Youth Group Services:  
Sundays at 11 PM, Thursdays at 7 PM

Restore Fellowship  
2525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 www.ladongsan.com

PASTOR MICHAEL LEE



Broadway Campus Sunday Services:  
9:45 AM, 11:15 AM, 12:45 PM  
Jefferson Campus Sunday Services:  
9:30 AM, 11:30 AM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Broadway: 1721 North Broadway, LA, CA 90031  
Jefferson: 150 W. Jefferson Blvd., LA, CA 90007  
T. (323) 227-1414 / www.ynccla.org

차종에 따라  
72개월까지  
0%이자 가능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SUMMER 특별SALE**

"THE EXCITING APPEAL OF ELANTRA SPORT"

**NEW**  
**2017 HYUNDAI  
ELANTRA SE**  
Lease It For **\$58<sup>+Tax</sup>**  
All In Stock With  
MSRP **\$19,260**

36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Signing, \$500 Lease Cash, \$500 Valued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NEW**  
**2016 HYUNDAI  
SONATA SE**  
Lease It For **\$88<sup>+Tax</sup>**  
All In Stock With  
MSRP **\$22,875**

"DESIGN RENEWED BY INNOVATION"



36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Signing, \$2,750 Lease Cash, \$500 Valued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NEW**  
**2016 HYUNDAI  
TUCSON SE FWD**  
Lease It For **\$98<sup>+Tax</sup>**  
All In Stock With  
MSRP **\$24,115**

24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Lease Signing, \$1,500 Lease Cash, \$500 Valued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NEW**  
**2017 HYUNDAI  
SANTA FE SPORTS 2.4 FWD**

Lease It For **\$118<sup>+Tax</sup>**

All In Stock With  
MSRP **\$26,470**

24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Lease Signing, \$1,250 Lease Cash, \$750, Competitive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찰리 정



스티브 장



저스틴 길

626.513.4981

626.723.3336

626.723.3584

**HYUNDAI**

**1-888-644-7114**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See dealer for LIMITED WARRANTY details.

Assurance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http://www.phhyundai.com)

